

삼성전기

전기車부품 공동개발

현대車

모비스와도...구동모터, 에너지 공급·저장 장치등

삼성전기가 차세대 전자부품 시장 개척을 위해 현대차·현대모비스 등과 손잡고 전기자동차부품 공동 개발에 나섰다.

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현대차와 협력 하에 현대모비스와 전기자동차 부품을 공동 개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종우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일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CEO강좌인 IT 기술의 혁신 및 경영'에서 "자동차 시장이 전기자동차로 바뀌면서 부품 역시 기계부품에서 전기전자 부품으로 달라진다"며 완성차 업체와 협력 하에 전기자동차 부품시장에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사장은 "부품회사로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며 "부품사업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구동모터, 에너지 공급 및 저장 장치, 전력 제어계, 서브시스템 등의 전자부품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삼성전기가 전기차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차세대 사업은 친환경 요소가 중요시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거환경,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IT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사업 영역이 확장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사장은 "앞으로 전자부품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갈 것"이라며 "전기차, 건설, 바이오 등 어떤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건설과 의료 분야도 차세대 전자부품 사업 영역으로 꼽았다. 태양전지 패널, 원격 전력 검침기 등 전력 소비를 줄여주는 친환경 주거환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현재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저장하는 태양광 인버터, 전력을 원격으로 검침 및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 등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추석 앞두고 바빠진 물류센터 추석을 약 3주 앞둔 3일 오전 경기도 여주의 신세계이마트 물류센터는 추석 선물을 배송으로 분주하다. 신세계이마트는 추석 상품이 입고되면서 평상시 처리 물량보다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darkroom519@

롯데百貨 신영자 사장 화장품사업 진출 뒷말 무성

홀로서기냐, 자식창기기 인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롯데백화점 신영자 사장의 명품 수입화장품사업 진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신 사장의 자식 창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롯데백화점과 업계에 따르면 신 사장이 지난 8월 '에스앤에스인터내셔널'이라는 화장품 도소매 업체를 신설했다.

신 사장은 '에스앤에스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를 맡고 첫째딸 장혜선 씨와 둘째 선운, 셋째 정안씨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 들어 동생인 신동빈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부각되면서 신사장의 입지가 좁아지자 자신들과 함께 '홀로서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롯데그룹 쪽과의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점, 세 딸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는 점 등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신동빈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딸들과 함께 화장품 수입업을 한다는 건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위한 모정 아니겠냐"고 말할 정도다. **2면에 계속**

윤철규 기자 yoonck@

■신한銀, 신한지주 신상훈 사장 고발 왜

라응찬 회장에 밍보였나

이백순의 밀어내기 인가

후계구도 둘러싼 '라인' 갈등 표출 인듯

신한은행이 전임 행장인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금융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공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신한금융그룹 후계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신한금융 경영진 재편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신한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훈 사장이 행장 재직시절 친인척을 상대로 950억원에 이르는 불법대출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은행은 신상훈 사장과 신한은행 직원 등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같은 급작스러운 사태에

대해 라응찬 회장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신상훈 사장이 아닌 이백순 행장을 낙점하면서 후계구도를 둘러싼 갈등 표출로 보고 있다.

일본계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은 특성상 재일교포 주주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의 재일교포 주주라인이 같은 반면 신상훈 사장은 다른 라인을 갖고 있다.

또한 라 회장과 이 행장이 도쿄지점장을 역임했던 반면 신 사장은 오사카지점장 출신이다.

특히 이백순 행장은 상무 시절 라응찬 회장이 재일교포주주 관리 업무를 맡길 만큼 라 회장으로 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 그룹내 2인자인 신상훈 사장의 지위를 위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라 회장과 신 사장간의 갈등은 최근 정치권에서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법 위반 논란의 배경에 신 사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균열이 심화됐다는 것.

신상훈 사장 역시 불법 대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가 1위와 3위가 2위를 쫓느라는 권력다툼의 일환으로 촉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선 업계 최고의 수익성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자랑해오던 신한금융이 이번 사태로 인해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희 기자 chaosbul@

연내 25조대 대형 M&A쏟아진다

우리금융·하이닉스·현대건설 등 새주인 기다려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로 물결을 틔 한반기 인수합병(M&A)시장에 우리금융, 현대건설, 대우일렉 등 대형 매물들이 나오거나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형 매물이 나오는 것과 달리 이를 살만한 투자자가 없는 상황이다. 기대를 모았던 금융권 매각도 인수 후보자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에 현재 최소 25조원대(금융사 포함)의 매물이 쌓여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어떠한 매물들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달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새주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외환은행 매각 등 국내 은행권 재편을 가속화할 매물들도 M&A시장에 얼굴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최대 관심사는 현대건설과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인이 누가될 것이라는 것. 현대건설의 인수전과 달리 대우

	기업명	매각 진행 내용
기업	대우조선해양	매수자 찾지 못해 장기화 가능성 높아짐
	현대건설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인수 의사 밝힘
	대우일렉트로닉스	오는 13일 우선협상대상자 엔텍홀과 본계약 체결
	쌍용건설	건설경기 고역 기업가치 높아지면 매각 진행
금융권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과 합병·본리매각 등 매각방식 검토중
	외환은행	본리 매각시 KT·포스코·외국계 PEF 지분 매입
	경남은행	호주 ANZ은행 외환은행 자산 실사 진행중
	광주은행	대우은행·부산은행·PEF 인수 의지
비씨카드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전북은행 관심	
		KT, 우리銀·부산銀·신한카드 보유지분 인수 추진 보고펀드, 기업銀·농협과 지분 인수 협의

조선해양과 하이닉스반도체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작업 조차 착수하지 못해 장기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재매각을 추진중인 쌍용건설도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굵직한 대형건설사들이 줄줄이 M&A를 준비하고 있어 연내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로 촉발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재편도 올해 하반기 M&A의 관심거리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둘러싸고 지분매각과 인수를 위

한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외환은행 매각작업은 '오리무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매각작업이 진행되거나 잠재적인 M&A 대상들도 쏟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규모가 커 투자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M&A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투자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경주 기자 ahnkj@

이투데이 5기 승승기자 합격자 명단
백기호 김지호 윤성열 강규구 이다람

www.happywoorisai.com

게임을 지배하라

KNOW YOUR COURSE...
KNOW YOUR DISTANCE...
KNOW YOUR SCORE...
KNOW YOUR GAME

Golf Buddy

The True GPS Range Finder

20,000
골프코스 저장능력
골프대회도 충분

골프버디 투어 보상판에
기존 모델 보상판에 실시
타사 GPS 골프거리측정기 포함

세기가 인정한 골프버디
“천만불 수출의 탑”수상

골프버디 프로 골프버디 투어 골프버디 티케이스

☎구입문의 1588-4014

Golf Buddy TOUR

골프버디 투어

- 반투과방식 컬러LCD텍
- 20,000개 코스 데이터
- 데이터 사용료 FREE
- 코스, 홀 자동인식
- 비거리 측정, 코스 측량가능
- 핀 포지션 설정가능
- Pin까지 남은거리 실시간 제공
- 병커,해저도 등 장애물까지 거리 제공
- 스코어 입력/편입 가능
- 위성 12CH/위성시스템
- Multi-Language
- 충전 및 건전지 검용

선물받으시는 분 또는 선물하시는 분의
회사로고 및 사진, 연락처 등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04-888-0000 010-1234-5678

‘고성장의 그늘’ 서민 체감경기 싸늘

올 2분기 GDP 7.2%↑ 대기업이 주도
장바구니 물가 경총… 공공요금도 들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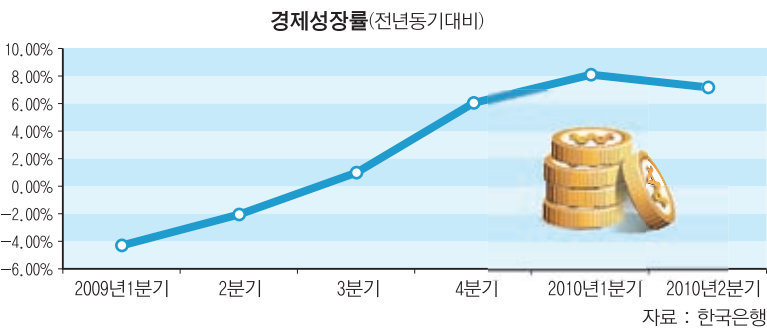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보다 7.2%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설비투자자와 재화수출이 큰 폭 늘어나 2분기 GDP는 7.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2분기 GDP가 이처럼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은 대기업의 수출 증가가 주도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실적은 기대치를 웃돌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순위는 지난해 9위에서 7위로 2계단 뛰어올랐다.

8월 수출입동향에서 8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6% 증가한 375억2900만달러, 수입은 29.3% 늘어난 354억5200만달러로 잠정 집계돼 무역수지가 20억7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흑자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의 수출 증가에 따른 대기

업 위주의 성장이 주도하는 이 같은 성장과 달리 서민 경제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눈부신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7월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던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으로 구직 활동이 늘면서 실업률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장비 투자의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는 고용 유발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해외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용 없는 성장의 한 요인이다.

여기에 사교육비 증가와 여전히 높은 주거비용 부담이 더해지면서 서민경제는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로 대표되는 가계부채는 700조원이 넘어선 상태다. 한 가구당 평균 80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분기 가구당 평균 월 이자부담은 7만



7000원에 달해 이자비용과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통계를 조사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도 서민들에게는 부담이다.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장바구니 물가에 가까운 신선식품 지수는 20% 오르면서 농축수산물

이 전년동월대비 8.9% 상승하며 서민들의 식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두 대기업 위주의 2분기 7.2%라는 성장이 서민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한선 기자 griffin@

기아車 임단협 완전타결

20년만에 무파업… 타임오프 정착 효시될 듯

기아차가 20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31일 임단협 잠정합의에 이어 2일 찬반투표에서도 임금 61.7%, 단체협약 58.4%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임단협 타결은 지난 1991년 이후 20년 만에 무파업 타결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기아차가 임단협 타결에 성공하면서 자동차업계로도 24년 만에 첫 완전자업계 무파업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87년 현대차와 쌍용차 노조 설립 이래 파업이 없었던 해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올해 쌍용차와 현대차가 잇달아 무파업으로 임단협 타결에 이르면서 완성차업계 무파업 타결에 대한 기대

를 높였다. 기아차의 임단협 타결은 타임오프 정착에도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기아차 노조는 유급전임자 수 제한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기아차는 원칙에 입각한 대응으로 타임오프 준수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한도인 연간 3만8000시간과 1인당 연 평균 노동시간인 1888시간을 적용하고 유급전임자 수를 21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의 타임오프 준수는 내년 있을 현대차 타임오프 협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타결이 완성차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홍수 기자 shs@

신영자 회장 화장품업계 진출

○ 1면에서 계속 신 사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롯데쇼핑 등기이사란 명함만 갖고 백화점과 면세점의 자문역할을 담당했을 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때문에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구도가 신동빈 부회장으로 확정되기 전에 신 사장이 딸들과 함께 홀로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영자 사장이 자신들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차린 작업은 과거에도 있었다.

신 사장의 큰 아들인 장재영씨는 롯데그룹 계열사의 포장지와 인쇄 사업을 하고 있는 ‘유니엘’과 백화점이나 국내 유명 면세점에 펌프 수입의류를 도소매하는 ‘비엔에프통상’을 운영하고 있다. 장씨는 비엔에프통상 지분 90%와 유니엘의 83%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설립한 화장품업체의 주요 주주로 돼있는 해선, 선운, 장안 등 세 딸들 모두 이 회사들의 등기이사로 등록돼있다.

모두 1990년대 초반에 세워진 회사들로 연간 총 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회사로 알려져 있다.

■ 8.29 부동산 대책 그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거두고… 호가 오르고

■ 1. 강남과 분당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강기섭(50·가명)씨. 올해 안에 한 채를 팔아 치우겠다고 마음먹은 강씨는 최근 분당 서현동 아파트(228㎡)를 11억5000만원에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8.29부동산 대책 발표 소식을 접한 이후 그의 생각이 180도 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연장된 만큼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졌다. 그는 인근 중개업소를 찾아 “13억원 이하로는 못 팔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나왔다. 호가를 무려 1억5000만원이나 올린 것이다.

■ 2. 목동 7단지에서 B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윤승혜(45·가명)씨는 DTI(총부채상환비율)폐지 뉴스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10억5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던 집 주인이 느닷없이 “잠깐 보류하자”며 ‘거래불가’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에 집을 팔려던 사람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

윤씨는 “거래가 뜬 가운데 공을 들인 계약인데 물건이 왜 버렸다”며 “(이런 분위기는) 타 단지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푸념했다. DTI규제 한시적 폐지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를 좋아하는 큰 손들이 물러나는 버블세븐 지역이 또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최근 매물은 호가가 최대 3000만원까지 올라 나오고 있다. DTI폐지 지역에서는 제외됐지만 재건축 사업 용역회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현재 은마아파트의 호가는 102㎡형 기준 9억원까지 오른 상태.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은마아파트 102㎡형이 9억원대에서 마지막 거래된 것은 지난 4월(9억

억소 대표)는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격이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다”며 “양도세 완화 2년 연장으로 집을 파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덜 손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퍼져 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가 됐다는 얘기가 지 틀리던 목동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DTI폐지 뉴스가 낱아든 이후부터다. 인근 공공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최근 수년간 집값이 하락해 지난해 반값 아파트라는 굴욕적인

애기까지 들어야 했다. 이에 집 주인들이 집을 팔고 전세로 살거나 그 돈을 예금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보험자리 주택을 기다리며 매수 타이밍

을 미루는 실수요자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번 DTI폐지로 거래시장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시각이 늘고 있다. 실제 이미 호가는 오르고 있고 매물을 회수해 가는 집 주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매수세가 불어줄지가 관건이라고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7단지 내 B공인 관계자는 “목동 아파트 시장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 아닌 강남 사람들”이라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지만 이를 받아 줄 수요(강남 투자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매수세에 가담할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이투데이 www.etoday.co.kr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김중현	광고국장 김진택	
주권부 (02)799-2658	산업부 (02)799-2664	금융부 (02)799-2661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유통경제부 (02)799-2667	경제부 (02)799-2655	국제부 (02)799-2650	(02)799-2604
온라인부 (02)799-2640	사건부 (02)799-2633	편집부 (02)799-2620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2006. 4. 27 등록번호 서울 다 07377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1부 1500원, 한달 6000원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6F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하이패스, 400만 그릇 나무

hi-pass 한국도로공사

400만 하이패스 운전자는 친환경 녹색 운동가

우리나라 차량 대수 4대 중 1대는 하이패스! 고속도로 이용차량 2대 중 1대는 하이패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일궈낸 놀라운 기록입니다 400만 하이패스 운전자 모두는 친환경 녹색 운동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경제도 환경도 시간도 이익, 하이패스!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플TV’ 아이폰 열풍 이을까

판매가 99달러...콘텐츠 렌탈 서비스 주목
터치 기능 아이팟 나노 등 신제품도 출시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새로운 아이팟 나노를 소개하고 있다. 이날 애플은 아이팟 나노·업그레이드 된 아이팟 터치·업데이트 된 OS 등을 공개했다.

애플의 새로운 기기들이 세상에 공개됐다.

AP통신은 샌프란시스코 YBCA시어터에서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TV 셋톱 박스인 애플TV를 비롯해 신형 아이팟 나노와 애플 기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이 출시한 신형 애플TV는 모든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의 렌탈 서비스로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TV쇼 렌탈은 99센트, 고화질(HD) 영화는 4.99달러로 이용 가능하다.

애플은 넷플릭스와 연동해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스TV를 비롯한 다양한 TV 프로그램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공개된 애플TV는 99달러로 판매된다. 229달러였던 이전 제품보다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 업체 관련자들은 99센트 렌탈 서비스가 1.99~2.99달러로 판매되는 고가

다운로드의 수요를 막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플TV는 이미 지난 2007년에 출시됐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티브 잡스 CEO 역시 “애플TV를 많이 판매했지만 큰 히트를 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새롭게 출시된 애플TV는 한 달내 이용 가능하다.

한편 스티브 잡스는 신형 아이팟 나노와 아이팟 터치 업그레이드, 아이튠즈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애플이 공개한 이번 신형 아이팟은 클라키 버튼 대신 터치스크린이 장착됐다. 가격은 8기 가바이트가 149달러, 16기 가바이트가 179달러로 책정됐다.

애플은 아이팟 터치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발표했다.

아이팟 터치에는 당초 예상대로 아이폰과 유사한 기능인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가 탑재됐다.

이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아

이팟 터치 이용자들은 아이폰 이용자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가격은 229달러에서 399달러로 떨어질 전망이다.

애플 기기의 운영체제(OS)인 iOS의 업데이트 내용도 공개됐다. 아이폰과 아이팟 이용자들은 다음주 아이튠즈를 통해 새로운 OS버전인 iOS4.1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이팟4와 아이팟 터치보다 더 오래된 OS가 탑재된 아이패드도 멀티 태스킹과 풀터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아이튠즈 환경 개선과 함께 ‘핑’의 기능도 추가됐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음악 소셜 네트워크다.

핑은 뮤지션과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과 팔로우가 가능하며 그들이 어떤 음악을 선택·구매하고 어떤 콘서트에 참가하는지 같은 세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민태성의 글로벌포커스

곤파스와 IPCC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으로 설립했다. 기상학자와 해양학자 등 3000여명의 전문가들이 IPCC를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IPCC의 설립 목적이다.

IPCC는 1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1990년 8월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는 지난 100년간 지구 표면의 대기 평균 온도가 섭씨 0.3~0.6도 올랐다고 밝혀 기상 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1995년 공개한 2차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을 경우 210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8~3.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면은 15~95cm 오른다. 일본을 비롯해 지대가 낮은 국가가 바다에 잠긴다는 우려는 더이상 기우가 아닌 셈이다.

IPCC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돼 2007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최근 IPCC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기후 연구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논설을 통해 IPCC의 기후 연구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연구에 대한 모든 가능한 과학적 시각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상이변 이슈는 인류에게는 생존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업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마련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통해서만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달러가 투자된다.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2012년 4082억달러에 이어 2020년에는 2조달러가 넘을 전망이다. 10년 뒤면 우리 돈으로 24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중 ‘곤파스’ 흥역 속에서

기상이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인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팽창하는 배출권 시장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는 거래소만 전 세계에 15개가 넘는다.

한국은 교토체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 감축의무 대상국가로 편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탄소제체 설립으로 2013년 우리나라도 탄소 정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G20 의장국으로서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기후전략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IPCC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해야 한다.

휴대폰과 LED 등 IT산업의 발전도 좋고 한류 문화 확산도 좋지만 보다 큰 그림은 지구촌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 아닐까.

국제부장 tsmin@

버블 탄 金값 “1500달러 간다”

18% 추가상승 전망
상장지수 제품 인기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의 예언이 적중하는 것인가. 금 가격이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버블 현상을 보이면서 올 연말까지 온스당 15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금 값을 정확히 예측해온 애널리스트들이 금 선물 가격이 오는 12월까지 온스당 1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1266.55를 18%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애널리스트들은 또 적어도 지난 1990년 이래 최장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금 가격이 경기 동향에 관계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 상반기 금값 추이를 정확히 예측한 코메르츠방크의 유진 와인



버그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 한층 더 침체되던 새로운 매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며 “경기가 견조해지면 보석장식품 수요가 확대되지만 경기가 악화하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버그는 금 값이 내년에는 14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와인버그와 함께 금 시장의 양대 애널리스트로 평가받는 도이체방크의 벤 브레너는 한 발 더 나아가 내년에 금값이 1550달러선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1400달

러를 예상한 와인버그보다 한층 공격적으로 제시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2개월간 내년도 금 값 전망을 다른 귀금속보다 대폭 끌어올려 연간 기준으로 10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상장지수제품(ETP)을 통해 막대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다.

올해 투자자들이 ETP를 통해 축적한 금은 274t으로 이를 올해 평균 가격으로 계산하면 103억달러에 상당한다. 전체 보유량은 7월 19일 현재 사상 최고인 2078t에 달한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렉서스는 브레이크 밟고 BMW는 가속페달

3개월 연속 판매량 역전

리콜 사태 여파로 도요타 렉서스의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BMW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BMW가 지난달 미국에서 1만 9450대를 판매해 1만9465대 판매에 그친 도요타를 3개월 연속 눌렀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집 오도널 BMW 북미법인 사장은 “올 하반기 시장성장세가 둔화돼 상반기만큼 좋은 실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어려운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와의 격차를 좁히



려는 우리의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렉서스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LS460과 GX460 SUV 등 리콜 사태 여파로 미국 부동의 고급자동차 1위 브랜드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 6월과 7월에 판매량에서 렉서스에 앞선 바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E클래스 시리즈 판매가 이달에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한데 힘입어 1만8826대를 판매했다.

렉서스는 8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11% 늘어난 14만5490대에 달해 고급브랜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같은 기간 벤츠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3만9867대를, BMW는 7.8% 늘어난 13만9236대를 판매했다.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업체 에드문드닷컴의 제스카 캄드웰 선임 애널리스트는 “올해 렉서스와 경쟁자의 격차는 매우 좁혀질 것”이며 “해가 지날수록 그 추세는 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10년물 국채 금리 2% 붕괴한다”

미국 채권시장의 랠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A)메릴린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년 1분기 2%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최대 7500억달러(약 890조원) 규모로 국채를 매입할 경우

채권 가격의 강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향후 6개월에 걸쳐 5000억~7500억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연준은 지난해부터 채권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매입한 국채는 3000억달러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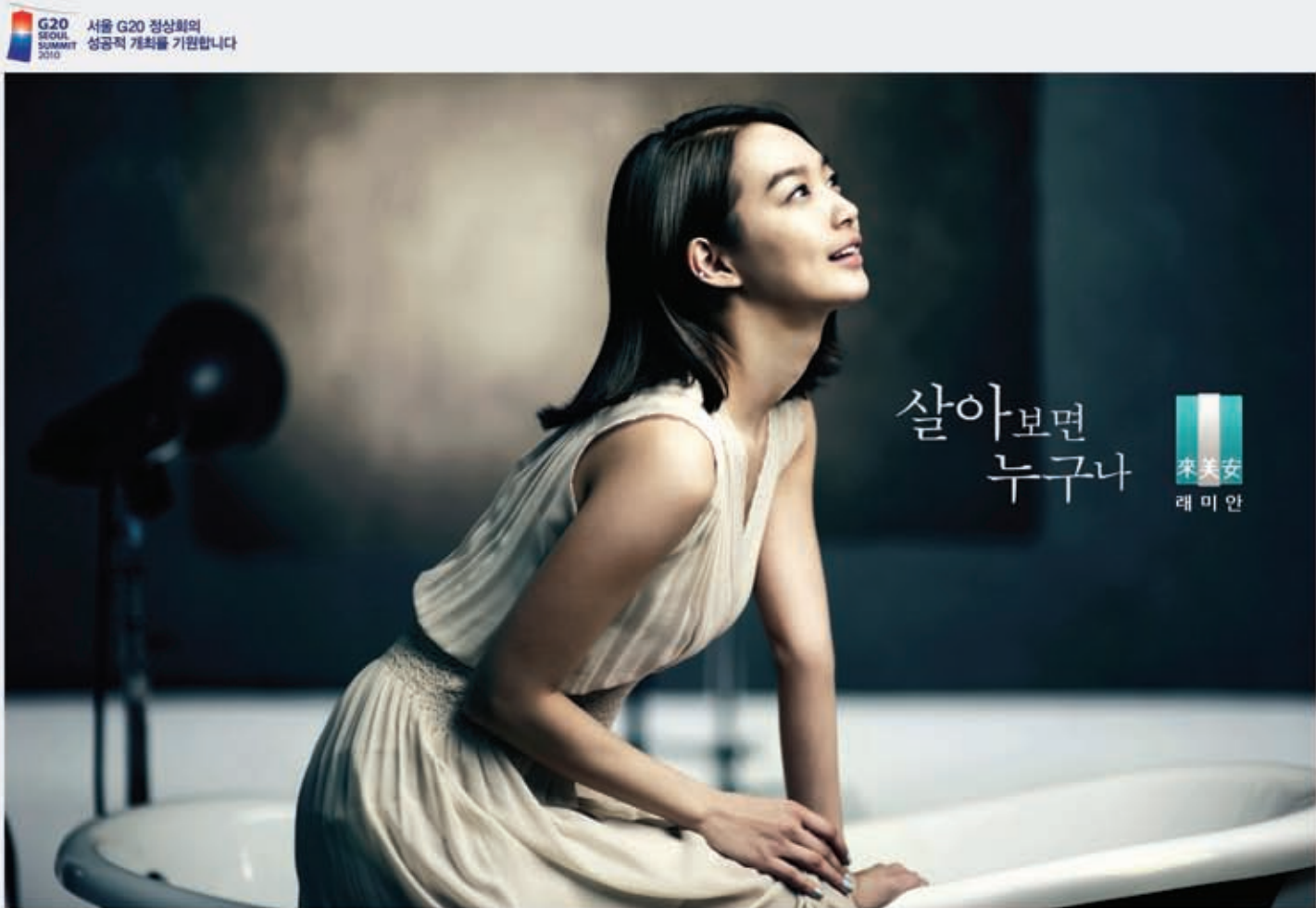
경제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망마저 어둡다는 것이 채권 매수세를 확대할 것

로 예상된다.

BaA메릴린치는 하반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1.65%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리야 미스라 BaA메릴린치 미국 채권투자 부문 책임자는 “연준은 2차 양적완화 차원에서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자산 확대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최저점을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aA메릴린치의 전망은 다소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좋은 집은 살아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래미안에 직접 살아본 분들이 그 생각에 공감해주셨습니다. 고객이 보내주신 한결 같은 사랑, 래미안이 더 좋은 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NCSI(국가고객만족도)13년 연속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 SAMSUNG

고용창출 실패...실속없는 실용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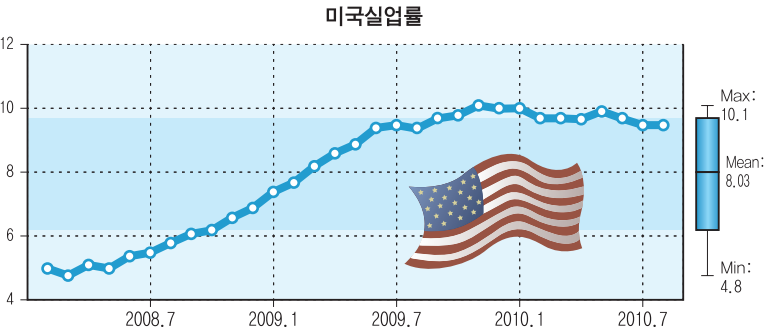
실업을 두자릿수 육박...무역 적자도 증가
경기부양책 등 오바마 경제정책 도마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드라마 같은 선거전을 치르는 등 술한 화제 속에 오바마가 미국 44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금융위기에 허덕이던 미국 경제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책과 막대한 구제금융으로 회복을 모색했지만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태다.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에 이어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그 자체다. 비판론자들은 오바마노믹스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부의 재분배와 고정관념을 배제할 실용주의를 외쳤지만 경제를 살리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고용시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9%대 중반을 지속하며 두자릿수에 바짝 다가선 상태. 연말에는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시장이 나아지지 못하면서 지난 7월에만 38만1000명이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2013년까지 1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률은 8%대로 떨어

져야 한다. 경제전문매체 더스트리트는 3년 안에 1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매월 32만명이 취직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태를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고조정을 감안할 때 재화와 서비스 수요는 매년 1%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분기 소비지출과 정부 구매는 4.4% 늘어났지만 수입이 늘면서 무역적자는 3.4% 증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세금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같은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세금 인상은 사치품 같은 비필수재의 소비를 축소시킨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법인세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줄이고 중국과 같이 인건비가 싸고 규제가 적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고용을 줄이는 등 내수진작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금융위기 이전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9.6%를 지출했다. 재정적자는 1610억달러였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정부 지출은 GDP의 25.1%로 늘었고 내년 적자는 1조3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7870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11월 중간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린산업을 육성한다며 막대한 자금이 녹색빌딩 건축에 투입됐지만 이는 비용만 늘릴 뿐 상업공간 창출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 효과도 제한됐다는 것이다.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를 통해 금융권에 쏟아부은 2조달러에 대해서도 대형은행에게만 혜택이 들어갔을 뿐 8000여개의 지역은행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쓰였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민태성 기자 tsmi@

美 ‘더블딕’ 불안감도 고조

성장 둔화세 뚜렷...고용·부동산 관건

미국의 고용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더블딕(이중침체) 우려가 점점 고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계속 10%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업률은 9.5%를 기록했고 지난달은 9.6%로 여전히 정체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장기 실업자가 늘면서 약 4080만명의 미국인이 정부가 지급하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s)’로 식비를 보조받고 있고 실업자의 45%는 구직기간이 평균 27주에 달한다. 미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연율 1.6%로

지난해 4분기의 5.6%, 올해 1분기의 3.7%에서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세제혜택 종료 이후 침체를 보이고 있다. 주택 관련 산업은 미국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고용시장 침체와 더불어 부진한 부동산경기로 인해 더블딕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집계한 지난 7월 기존 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27.2% 감소한 연율 383만채로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7

월 신규주택판매도 전월 대비 12.4% 감소한 연율 27만6000채를 기록해 지난 1963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다.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잇따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유명해진 ‘닥터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오는 하반기에 1% 미만에 그치고 더블딕 가능성이 4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만큼 이제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현재 가장 급한 임무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수 백만명의 미국인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통화당국도 혼선...헷갈리는 버냉키

FOMC, 경기부양책 격론

미국의 경기부양 방안을 놓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당시 경기부양 방안 가운데 하나로 모기지증권(MBS)의 만기 도래분을 국채 매입용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때 일부 참석자들은 강하게 반대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이사들은 최근 몇달간 성

장세가 둔화했으며 추가적인 경기하강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논의 내용은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경기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도전에 직면했다.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버냉키 의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할 경우 FOMC는 추가 통화 완화정책을 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은 FOMC 의사록을 통해 “회의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기관채나 MBS의 상환금을 미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에 대해 연준이 대규모 자산 매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부적절한 신호를 투자자에게 보낼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토머스 호니그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만 추가 부양책에 반대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오바마 구제금융 및 의보개혁 요지		
주요사업	내	용
의료보험개혁	•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 재정 투입 • 무보험자 3200만명에 의료보험 혜택 제공 • 과거처럼 경력이나 노령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금지	• 전 국민의 96% 의료보험 가입 목표 • 보험거래소 시스템 도입해 보험료 인하
금융권 구제	• TARP 통해 금융권에 7000억달러 투입	• 주요 금융기관 혜택
자동차산업 구제	• 자동차 산업 구제에 850억달러 투입	• GM 500억달러, 크라이슬러 350억달러 지원

구제금융·의보개혁 ‘심판대’ 오른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성패 관심

오는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간점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오바마 정권의 주요 현안이었던 구제금융과 의료보험개혁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화두는 실업과 재정적자 등 경제문제.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금융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자동차와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의 성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정권 공약이었던 의료보험(이하 의보)제도 개혁 역시 여론의 평가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의보개혁법에 서명, 역사적인 위업을 달성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을 주창한 이래 100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전국민의 의보가입을 목표로 한 의보개혁법의 골자는 무보험자 3600만명의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2014년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의 의료보험 의무화 등을 통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미 국민의 98%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 의보개혁은 오바마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지지를 고전의 주역이기도 하다. 반대파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보험료 강탈’ ‘사회주의’ ‘차세대에 대한 막대한 재정부

담’이라며 여전히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보개혁으로 미국 내 의료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료관공협회의 조나단 에델하이트 대표이사는 “미국의 의보개혁이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비 절감에 필요한 조항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의료비와 의료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7월말 오바마의 디트로이트 시할도 중간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미시간 주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그룹의 공장을 방문했다. 앞서 6월 15일에는 GM의 전기차 ‘볼트’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LG화학의 미시간 주 홀랜드 공장 기공식에도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GM의 디트로이트 햄트랙 공장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파투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동차 업체를 살린) 우리의 단호한 결정이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총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한지 1년 만에 자동차 업체에는 생기가 돌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887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0-4332호 (2010.08.24~2011.08.23)

미래에셋이
한국의 VIP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safe랩

글로벌 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설계된 세이프랩!
시중금리로는 만족 못하시는 고객님의 위해
자산관리 전문가, 미래에셋증권이 준비했습니다.

시중금리+α의 수익을 추구하는 미래에셋증권 safe랩

■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글로벌 채권, ELS 등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자산관리 전문가의 리밸런싱 서비스

ACCOUNT

미래에셋 에카운트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대표전화번호 : 1577-9300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 관리되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형으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랩어카운트 계약 대상, 운용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랩어카운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상기 safe랩은 당사의 투자일임계약 중 변동성이 낮은 상품을 위주로 운용하는 개별 랩서비스 그룹의 명칭으로 투자원금이나 이익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각 랩서비스에는 일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매출〉〈순익〉 100조-10조 쾌속질주...2020년 ‘글로벌 톱3’ 진입



자동차와 부품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한 현대차그룹은 지난 10년간 제철과 건설, 물류 등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그룹 분리 당시 16개였던 계열사는 10년 만에 42개로 늘었다. 사진은 현대기아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



반세기기를 이어온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 1967년 창립 이후 현대자동차의 40여 년 발자취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의 불모지에서 1976년 국내최초 독자모델인 ‘포니’를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역사의 첫 장을 열었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에 ‘엑셀’을 수출해 자동차 수출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1991년 자동차 핵심부품인 엔진과 변속기의 독자개발을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의 기술 자립화도 선도해나갔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1997년 터키 공장을 시작으로 주요 시장별 생산공장, 연구소, 판매법인을 설립해 제품개발, 생산, 판매 등 핵심 부문의 현지화를 통해 지역에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경영으로 새롭게 도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난 10년간 현

현대기아차그룹이 지난 1일로 그룹 출범 10년을 맞았다. 과거 현대그룹에 속해 있던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서울 계동에서 지금의 양재동 사옥으로 옮겼다. 이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그룹 분리를 인가받으면서 현대기아차그룹은 단숨에 재계 4위로 급부상 했다.

대차그룹은 단순히 외형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

자산총액은 2000년 36조1360억원에서 2010년 4월 기준 100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재계 순위는 2위, 국내에선 삼성그룹(192조8000억원)이 아니면 따라올 자가 없는 구도가 됐다.

그룹 전체 매출은 2000년 36조 5000억원에서 2009년 94조6000억원으로 2.6배, 순이익은 1조2032억원에서 8조4290억원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출범 10년 만에 매출 100조원과 순이익 10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동차 기업 출범 10년 만에 글로벌 톱5 달성=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되면서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현대차그룹은 지난 10년간 자동차와 부품제조를 기반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뒀다. 현대그룹과 분리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기업을 바탕으로 한 명가(名家)의 재건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제철과 오투,

글로벌비스, 현대캐피탈 등 철강과 건설, 물류, 금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고 그룹 분리 당시 16개였던 계열사는 10년 만에 42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성장에는 모태였던 자동차 그룹의 성장과 확장에서 비롯됐다. 2000년 한해 동안 243만6000대를 생산했던 현대차그룹은 2009년 464만대를 기록했다. 2010년 상반기만 275만3000대를 기록해 올해 연간 판매대수는 54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특히 해외 곳곳에 현지 공장을

을은 지난해 8.5%까지 치솟았다.

2020년까지 글로벌 톱3 진입, 점유율 15% 목표=이러한 성장은 품질경영을 앞세운 현대차의 중장기 계획이 주효한 덕이다. 1980년대 초 미국 진출 이후 ‘품질 낮고 가격만 싼 한국차’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개선을 앞세운 덕이다.

결국 품질에 대한 해외 언론의 호평이 이어졌고, 이는 지금의 현대차그룹을 키워낼 수 있는 충직한 자양분이 됐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이 같은 급성장은 정몽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글로벌 기업을 향한 지속적인 품질혁신 경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 매년 수차례씩 해외법

품질 우선주의 경영이 빚어낸 10년의 성과= 이러한 성과 뒤에는 지속적인 품질 최우선 경영을 통해 품질이 가장 좋은 자동차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그룹 전반적인 의지가 서려있다. 덕분에 브랜드 측면에서도 세계 100대 브랜드에 한국 자동차업체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책임 경영을 통해 주주와 고객, 임직원 및 자동차산업 이해관계자와의 조화와 공영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전사적인 투자를 내비치고 있다. 2008 리먼쇼크 이후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과 현지의 생산, 판매 노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을 확대시킨 몇 안 되는 자동차 기업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그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0만대가 넘는 판매 신장도 이뤄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품질 경영으로 유수 평가기관의 좋은 성적과 함께 고객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며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등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안전, 환경, 사회복지, 교육 등 주요 중점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10년간 자산 3배 급증 재계 순위 2위 연구개발 박차 ‘품질 최우선 경영’ 결실 글로벌 이슈 선제대응 ‘지속가능’ 강화

세우면서 해외생산은 현대차가 2000년 11만5000대에서 2009년 150만대로 늘어났고, 2000년 해외 공장이 없던 기아차는 동유럽과 미국 등에 생산거점을 마련 지난해 해외에서만 39만2000대를 생산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승용차, RV, 상용차 등을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연간 300만여 대를 판매하고 있는 종합자동차회사로서 전 세계 8개 생산공장, 12개 연구소, 5300여 딜러망 및 직접 판매법인, CKD 조립 공장 등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현대기아차는 2000년 판매대수가 40만4000대였으나 2009년에는 73만15천127대로 늘어났고 시장점유

인을 방문해 생산과 판매, 품질 유지 현황을 점검하는 ‘글로벌 현장 경영’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현지 전략 차종을 개발해 적기에 공급해온 해외 시장 전략도 주효했다.

여기에 선진국 시장에 치우치지 않는 현대기아차의 고른 포트폴리오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례적인 신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2020년까지 ‘글로벌 톱3’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룹 분리 10년 만에 글로벌 톱5 달성을 이뤘고 향후 10년 안에 톱3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8.3%는 2배에 달하는 15%를 목표로 삼았다.

SMART BANK

KEB 외환은행

NEO LIFE STYLE

N°N

스마트한 직장인, 더 많은 혜택을 향해
넘버옴으로 이동중!

월급통장+신용카드+월복리적금이 만드는 완벽한 조화

KEB 넘버옴 N°N 패키지

은행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혜택,
결국은 KEB 넘버옴 N°N 을 따라오게 만드는 혜택!
스마트한 직장인들은 지금 넘버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환은행 홈페이지 (www.keb.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심경영 있는 ‘글로벌 리더십’

정의선 부회장 ‘5대 신성장 동력’ 발판 도약채비

출범 10년 만에 글로벌 톱5 진입에 성공한 현대기아차그룹의 성과 뒤에는 정몽구 회장의 독심경영이 뒷받침됐다. 오너경영 체제 속에서 빛을 본 추진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런 현대차그룹의 성장 뒤에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아차의 약진도 자양분이 됐다. 나아가 기아차 성장을 이끈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의 역량도 뒷받침됐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년간 정몽구 회장이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다가오는 10년은 이른바 정의선 부회장이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정의선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 부회장은 성장통에 걸렸던 기아차에 디자인을 내세워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현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정 부회장은 이를 만회한다는 전략 아래 ‘디자인’을 경영전면에 내세웠고 결국 이것은 주효했다.

첫 단추는 독일 아우디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의 영입이다. 이는 형식적인 스카웃이 아니었다. 그에게 디자인에 관련한 전권을 일임하면서 동시에 기아차 전체 디자인에 깊은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를 요구했다.

결국 기아차는 최대의 약점



정몽구 회장

이었던 디자인을 최대의 강점으로 갈아치웠다.

이 같은 성과 덕에 기아차는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현대차와 더불어 판매가 신장된 몇 안 되는 자동차 회사로 도약했다.

기아차의 성공 기반을 다졌던 정의선 사장은 지난해 그룹 총괄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1년여 동안 그룹 전반적인 기획을 총괄하면서 3세 경영을 위한 입지를 다져왔다. 기아차시절 입증된 역량 덕에 오너 경영체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입지도 더욱 굳어졌다.

그는 직접 해외법인장 회의를 이끌고 임원들에게 직접 영업현장을 돌도록 지시하는 등 아버지 정몽구 회장과 속 깊은 경영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프랑크푸르트·제네바·베이징모터쇼 등 세계적인 메이저 모터쇼에선 직접 헤드 마이크를 걸고 무대에 올라 국제무대에서 현대차의 품질과 자신의 당위성을 알리기도 했다.

출범 이후 10년 동안 정몽구



정의선 부회장

회장이 독심으로 품질경영을 내세웠다면 정의선 부회장이 이끌어갈 다음 10년은 5대 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한 내실과 도약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차그룹이 내세운 성장동력은 향후 2020년까지 현대차의 글로벌 톱3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됐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자동차 개발 △고객만족도 제고 △투명경영 △품질경영 등이다.

이러한 과제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연비와 성능, 품질을 앞세워 글로벌 톱3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의선 부회장을 내세웠다.

이처럼 아버지 정몽구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갖춘 정 부회장이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향해를 책임지는 리더가 될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www.hhi.co.kr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큰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를 찾습니다"

※ 상세내용: 채용 홈페이지 (<http://recruit.hhi.co.kr>) 참조



서민들에 ‘미소’ 못준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의 계층들에 대해 창업·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연말 의욕적으로 출범한 대기업 및 금융권 미소금융이 출범 9개월 동안 150억원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소금융 상담인원수 대비 실제 대출율은 6%대에 불과해 대출조건 완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당초 출범 취제와 부합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본지가 대기업 및 금융권 미소금융 실적을 수집한 결과, 지난 20일 현재 상담고객수는 2만6707명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대출건수는 1664건(6.4%)에 불과해 여전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실적과 비교하면 상담고객수는 1만4700명에서 2만670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제 대출된 건수는 300명(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대출 현황을 보면 대기업 미소금융재단중 가장 많은 7개지점을 개설한 삼성미소금융은 5419명의 고객이 상담을 신청했지만 대출건수는 226건(4.17%)에 불과했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도 각각 3107명, 2850명의 상담고객중 대출건수는 207건(6.66%), 190건(6.66%)이었다. LG도 1993명의 고객을 상담했지만 대출건수는 121건

미소금융 재단별 실적(단위 개, 명, 건수, 만원)					
	재단	지점수	상담고객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기업	삼성	7	5,419	226	210,490
	SK	5	3,107	207	194,980
	현대차	5	2,850	190	135,300
	LG	4	1,993	121	133,290
	포스코	3	1,396	130	118,600
금융권	롯데	1	348	53	51,200
	KB	3	3,893	215	174,710
	신한	4	2,697	184	162,150
	우리	3	2,544	134	124,820
	하나	2	1,372	144	105,250
	IBK	2	1,088	70	54,900
전체		39	26,707	1,674	1,465,690

출범 9개월 150억 ‘지지부진’ 상담건수 대비 대출실적 6.2% 자기자본비율등 요건 완화해야

(6.07%)에 그쳤다.

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KB금융지주는 상담고객이 3893명으로 금융권중 가장 많았지만 대출건수는 215건(5.52%)였다.

신한금융지주도 2697명의 상담고객중 184건(6.82%)였으며 우리금융지주도 2544명을

상담했지만 대출건수는 134건(5.26%)에 불과했다.

미소금융의 대출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이 50%에서 30%로 줄었지만 여전히 대출받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다. 미소금융 지점이 찾기 어려운 곳에 설립돼 있는 데다 자기자본비율 이외에 세부조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사업자 등록후 2년 이상 영업을 해야 하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도 재산 대비 채무비율과 재산 규모에 맞춰 지점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적합하다고 해도 지역별로 미소금융의 조건이 달라진다. 대도시에서 사는 서민들은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기타지역은 8500만원 이하부터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다. 또 채무비율은 재산의 50% 이하 여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월별 실적은 크게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여전히 상담고객수 대비 대출건수는 10% 미만”이라며 “자기자본비율 이외에 지역별, 채무비율 등 세부조건을 완화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은행 BIS 7분기만에 첫 하락

후순위채 인정금액 줄어 6월말 14.7%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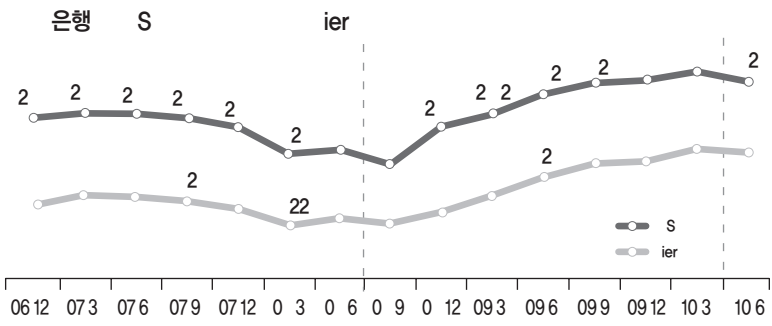
상반기 국내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이 14.29%로 2008년 9월 말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은행권의 자기자본이 올해 2분기 중 1조4000억원(0.9%) 감소한 반면 위험가중자산이 21조원(2.0%) 증가하면서 BIS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날 31일 상반기 국내은행의 BIS비율이 3월말 14.70%보다 0.4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BIS비율을 이루는 자기자본이 2분기중 1조3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후순위채권의 인정금액이 감소하면서 자기자본도 함께 감소했다. 후순위채권은 잔존만기 5년 미만일 경우 매년 20%씩 보완자본 인정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중 원화대출금은 2분기중 12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외화대출금도 6조8000억원 늘었다. 매입외환과 파생상품 자산도 환율 상승 등으로 각각 5조 2000억원, 7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별 BIS비율로는 신한과 시티



은행이 각각 16.15%, 16.61%를 기록했지만 지난 3월과 비교하면 각각 0.05% 포인트, 0.02% 포인트 감소했다. 신한은행은 기본자본비율이 지난 3월보다 0.24%포인트 증가한 12.86%를 나타냈지만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면서 BIS비율이 하락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14.59%, 13.01%를 나타내며 같은기간 0.23% 포인트, 0.88%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BIS비율이 큰 감소세를 보였고 기본자본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0.36% 포인트 크게 떨어진 10.73%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BIS비율이 크게 감소한 15.33%를 기록하며 지난 3월보다 0.83%

포인트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도 0.27% 하락한 11.96%를 나타냈다.

하지만 금감원은 모든 은행이 현재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인 BIS 비율 10%, 기본자본비율(Tier1) 7%를 초과하고 있어 아직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본자본비율도 11.33%에 이르는 등 자본의 질적 측면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바젤위원회가 자본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성을 계속 축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현희 기자 maru13@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변액보험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금이 주식과 채권 등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에 따른 지급보장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전도 곤란하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장관은 1일 “보험사는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저조해 지급될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보험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보증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저보증준비금을 일반계정에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금 규모가 주식과 채권 등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일반계정이 아닌 특별계정에서 운용해왔다.

김현희 기자 maru13@

보험사도 ‘가격경쟁’ 본격화

10월부터 사업비율 공시… 소비자에 ‘원가’ 공개

오는 10월부터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를 공시가 강화된다. 사업비율이 공시되면 보험상품별 원가가 공개되는 셈이어서 보험사간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증진됨에 따라 사업비 공시에 대한 필요성이 저축성 변액보험에서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10만원을 낼 경우 2만원은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8만 원정도만 위험보장과 자산운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클수록 피보험자가 받게 될 보험금은 줄어든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일부 변액보험을 제외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공개를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비 공시 강화

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료의 내역 및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유지시 발생하는 보험관계비용, 수수료 등 사업비의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해야 한다. 공시수준은 지난 4월부터 사업비를 공시하고 있는 저축성 변액보험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보장성보험은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준보험료에 비교할 수 있는 보험료 지수와 보장위험별 영업보험료 등을 공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 보험료 수준에 대해 비교가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간 합리적인 요율책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되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장해리 기자 healee81@



외환은행 ‘최우수 무역금융은행상’ 외환은행이 지난 1일 홍콩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파이낸스아시아紙 주최 수상식에서 한국내 ‘최우수 무역금융은행상’ 및 ‘최우수 외국환은행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외환은행 방기석 자문시장영업본부장, 김영성 외환업무부장)

불법 대부업체 생활정보지 허위광고 ‘주의보’

불법 대부업자가 생활정보지 광고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서울지역 생활정보지 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 32건, 허위·과장광고 및 광고기준 위반 광고 55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

혔다.

자금 편취는 미등록(불법) 대부업자가 등록(합법) 대부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보내고 전화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현경 기자 khk@

우리금융 매각주관사 우리·대우 등 8곳 압축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주관사 후보가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JP모건 등 8개 증권사로 압축됐다.

지난 1일 예보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매각주관사 입찰에 참여한 국내외 증권사들의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국내사 5곳, 외국사 3곳 등 8곳을 프리젠테이션(PT) 면접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사 가운데는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KPMG 등 5곳이 외국계 증권사 중에는 JP모건, UBS, 모간스탠리 3곳이 대상에 올랐다.

예보는 숏리스트에 선정된 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오는 6일 PT 면접을 실시한 뒤 다음주 중 국내 2곳, 외국계 1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마감된 입찰 신청에는 국내 증권사 9곳과 외국계 증권사 8곳 등 총 17곳이 주관사 제안서를 신청했었다.

최영희 기자 chaosui@

왕초보를 슈퍼개미로 만드는 주식투자 입문서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독하게 분석해 투자하라!”

13만 회원이 감동한
네이버 NO.1 대표카툰
주식투자의 바이블

네이버 No.1 주식카페 ‘스탁시티’ 매니저 이진욱,
슈퍼개미의 주식투자 노하우!

주식, 남이 사면 오르고,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주식의 기초를 바로 알고,
독하게 투자하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는 투자전략이 아닌, 이기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

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미르북스에서 출간한 『주식투자 독하게 하라』는 주식공부가 어려워 ‘묻지마 투자’를 하는 초보자들의 눈에 맞춘 주식투자 입문서로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에 앞서 주식이란 무엇인지에서부터 다양한 주식 용어, 차트 분

석, 기술적인 분석, 심지어 주식의 매도와 매수까지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식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준다. 또한 특별부록 ‘황금알을 낳는 유망 테마주’를 통해 그동안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답답해하던 독자들에게 밝은 투자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이진욱 지음 | 290쪽 | 정가:15,000원

문의 02)3141-4421 미르북스

서점 할인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천만의 답! 인터파크서는 다릅니다.

최저가 아니면
1 상품별 200%보상

내가 살 책, 클릭 한번이면
2 최저가로 즉시변경

서울/수도권은 기본
3 부산까지 당일배송

인터파크 도서

인터넷서점 어디를 둘러 봐도 이보다 미 뽕 수는 없다
도서/음반/DVD 베스트셀러

10,000종 할인!!
최저가 할인!!

클릭 한 번이면 책 값이 최저가로 즉시 변경! 그것도 모자라서
쿠폰에 도서상품권까지? 실랄 실랄 불바람 타고, 지구판
내려가는 책 값 이렇게 싸도 되는 거!?

Event. 구매금액대별 할인쿠폰 증정

2,000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상품권
3,000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상품권
7,000원 이상 구매 시 7,000원 상품권

도서/음반/DVD 구매시 사용 가능 선드림카드 등 일부상품 제외

인터파크 Book - 주식투자 독하게 하라

중소 창투사 스팩투자 허용

중기청 고시 개정 추진… M&A시장 참여 가능해져

투자자금 회수 안정 · 편의성 높아질듯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기창투사)의 M&A(인수합병) 시장 참여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기창투사의 투자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중기청장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중기창투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투자를 중기청장자의 고시에 명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기창투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중기창업지원법과 시행령, 청장 고시 규정 등에는 스팩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창업지원법은 중기창투사의 금융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기청장이 인정해 고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현재 중기청장 명의로 발표된 고시에는 스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논쟁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창투사 입장에서는 스팩에 대한 투자 허용을 담은 고시가 개정될 경우 투자를 금회기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창투사들이 투자기업공개(IPO) 일색인 투자자금 회수 방식을 M&A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팩은 자금을 공모방식으

로 모집해 설립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이를 상장한 후 유망장과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를 기존 창업투자 방식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스팩 제도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창업지원법과 시행령, 고시에 관련 내용을 담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날 중으로 청장 고시를 통해 스팩 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외국인, 생보사 지분 늘리는 이유는?

대한생명에 이어 동양생명 등 생보사들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사들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보사들의 경우 안정성이 어느 기업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이 장기 투자를 하는 롱텀 펀드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금감원 공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더 보스턴 컴퍼니 에셋 매니지먼트(TBCAM)가 장내 매수를 통해 동양생명 지분을 5% 취득했다.

이에 앞서 라자드에셋은 7월 23일 장내 매수를 통해 대한생명 지분율을 5.21%까지 끌어올렸다.

라자드에셋은 지난 3월 대한

생명 상장을 앞두고 청약에 참가해 190만주를 배정받은 후 꾸준히 매수해 보유 주식 수를 452만여주까지 늘렸다.

이들 생보사 지분을 매입한 펀드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장기 투자를 하는 롱텀 펀드라는 점이다.

TBCAM은 운용자산총액이

사원금, HSBC 퇴직연금 등이 투자자로 참여 중인 장기 투자펀드로 2009년 말 기준 자산 규모가 990억 달러(약 118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장기 투자 펀드들이 생보사 지분율을 늘리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투자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라자드에셋 '대한' · TBCAM '동양' 5%이상 확보

전문가들 “장기 수익 예측 가능한 롱텀펀드 공통점”

40조원(2009년 말 현재)에 달하는 미국의 자산운용사다.

TBCAM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가치를 중시하는 신중한 투자성향이 특징으로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주를 발굴하는 투자방식을 고수하는 운용사로 알려져 있다. 라자드에셋은 UAE 아부다비투자청, 미국 캘리포니아교

생보사들의 경우엔 이미 99% 이상 팔았던 계약으로 꾸준히 실적이나 실는 것이라 실적 예상이 상당히 용이하다.

미래에셋증권 신승현 연구원은 “국내 펀드들의 경우엔 지나치게 단기 투자에 치우쳐 있지만 생보사들의 경우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며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을 5% 수준까지 유입했다면 장기투자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aosbi@

“1등 금융투자회사 만들겠다”

제도 · 시스템 업그레이드…IB 순위경쟁 나설 것

사명변경 1년 신한금융투자 이휴원 사장

“신한금융투자로서 사명을 변경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에 걸맞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IB순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입니다.”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신한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한 지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사장은 “2008년 금융위기 뒤 처리로 적극적인 IB를 펼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그동안은 부실자산 정리 등 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에 주력, 체질개선을 위한 변화를 준비기간이었다”고 지난 1년간의 평가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회사를 표방하며 업계 최초로 조직성과급 및 임금피크제 도입, 국내외 전문기관과 연계한 우수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며 ‘이휴원 식’ 경영을 추구하며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꾀했다.

이 같은 경영이 성공을 거두며 굿모닝신한증권의 지표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를 기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1년간의 체질 개선을



변모한 실력으로 향후에는 IB 순위경쟁에 뛰어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삼성생명 IPO간사, 포스코의 대우인테리어널 매각 자문 사 등 굵직한 일을 성사시켰다”며 “정비된 내부시스템과 신한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IB순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사장은 “신한금융투자의 비전은 ‘1등 금융투자회사’라며 “이를 위해 자산영업과 IB역량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고 IB와 트레이딩의 상품제조 역량을 강화해 유통과 제조부문을 선순환시켜겠다”고 자신했다.

강재용 기자 manrikang@

무상증자 기업 줄줄이 ‘뒀서리’

늘어난 유통주식이 주가 상승 발목잡아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무상증자를 실시했던 종목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상증자의 경우 일시적인 주가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희석효과로 주가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코스닥 시장에 무상증자를 밝힌 성우하이텍은 증권사로부터 폭락을 받았다.

현대증권은 이날 성우하이텍에 대해 무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해 적정주가를 기존 2만8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30%하향 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8월 12일 보통주 1주당 신주 0.3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당일날 9%까지 상승하며 성공하는 듯 했지만 1만2000원이던 주가는 1만원대까지 하락했다.

국내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로 IT패널용 구동회로를 공급하는 실리콘웍스도 무상증자를 밝혔지만 뒀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달 23일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실리콘웍스는 이날부터 하락하며 7만원이던 주가는 6만3000원까지 떨어졌다.

증권가에서는 유통주식 수를 늘리려는 기업들이 주가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대형주 위주로 오르는 장세에서 유통주식 수를 늘리려는 소형주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종목들이 감자와 더불어 주식분할을 하거나 유상증자와 묶어 무상증자를 하는 등 자금조달 필요성이나 재무부실을 의식해 하는 악재와 함께 주식을 늘리는 것도 시장이 외면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는 “무상증자는 펀더멘털상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량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재용 기자 manrikang@

이트레이드증권 ‘HTS 씹큐’ 오픈 이벤트



이트레이드증권은 9월 한달 동안 F&F(Friends & Family) 사전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

고객맞춤형 HTS 씹큐(xingQ) 배터 오픈으로 진행되는 F&F 사전체험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 및 HTS내에서 씹큐(xingQ)를 다운로드 받아 전용게시판에 개�점 및 축하메시지를 남긴 고

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무료 수수료 쿠폰 및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이 증정된다.

새로운 HTS 씹큐(xingQ)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화면 유형을 제공하며 주식 선물옵션 거래 뿐 아니라 해외증권 거래도 하나의 HTS 내에서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고객의 니즈

“우회상장도 신규상장처럼 심사해야”

자본시장연구원 공청회

우회상장 후 상장폐지된 기업 대부분이 비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우회상장 기업에 대

해 신규 기업공개(IPO)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일 한 국거래소에서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

최했다.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회상장과 관련 회계 투명성과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의 문제,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우회상장 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

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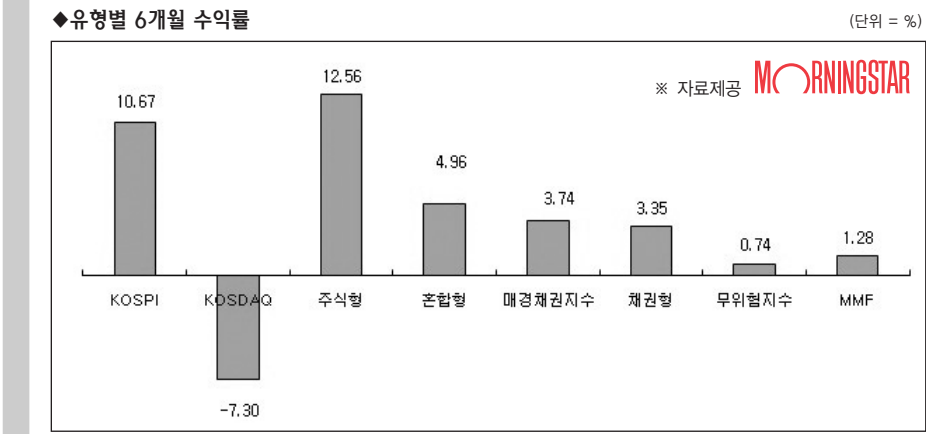
현행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것이다. 우회상장 과정에서 과대평가된 비상장사의 가치 버블은 증권시장으로 전이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유형	운용규모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월
KOSPI		1.72	0.30	8.24	10.67	4.87
KOSDAQ		0.47	-2.38	-3.84	-7.30	-8.48
주식형	1,029,797	1.91	0.89	7.38	12.56	5.41
혼합형	223,996	0.70	0.52	2.87	4.96	4.05
매정채권지수		0.07	1.07	1.84	3.74	5.12
채권형	490,420	0.04	0.80	1.55	3.35	5.16
무위험지수		0.03	0.14	0.39	0.74	0.96
MMF	853,544	0.05	0.21	0.61	1.28	1.72

※운용규모는 설정후 10주 이상된 펀드들의 설정과 함께 3개월 이상된 펀드들의 순자산 기준 평균 수익률



펀드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배타계수
(단위 = 억원, %)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	미래에셋증권	2006-01-07	850	3.69	4.78	15.46	22.02	31.72	0.86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	미래에셋증권	2001-05-02	924	4.34	1.87	8.46	6.22	20.03	0.77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	미래에셋증권	2001-05-02	1,260	4.32	1.81	8.27	21.59	25.13	0.77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	미래에셋증권	2006-09-27	261	2.11	4.07	19.74	17.68	17.68	1.02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	미래에셋증권	2009-09-01	178	1.19	0.95	7.87	16.63	20.56	0.93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	미래에셋증권	2006-03-24	3,426	2.03	-0.24	9.77	12.52	18.82	0.89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	미래에셋증권	2006-03-24	3,426	2.03	-0.24	9.77	12.52	18.82	0.89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0	미래에셋증권	2007-06-27	947	2.22	3.11	18.85	17.48	19.35	1.07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3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4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5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8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9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0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3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4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5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8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29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0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3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4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5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8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39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0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3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4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5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8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49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0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3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4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5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8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59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0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3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4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5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8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69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0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3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4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5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8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79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0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3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4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5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8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89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0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3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4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5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6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7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8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99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00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01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1.99	-0.18	6.80	12.30	19.06	0.85	
미래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외 102	미래에셋증권	2006-01-16	946							



정부·기업·근로자 삼위일체 기적을 만들었다

■ 경제발전 분석 국제 컨퍼런스

지난달 30일 실라호텔에서는 한국경제 60년을 돌아보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효율성 있는 경제정책 집행을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 교수는 시장 지향성, 적절한 정부개입, 그리고 행운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도입과 실행을 한국 경제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다.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는 경제성공을 위한 지도자들의 헌신적 노력, 실용주의, 중화학 공업 위주의 정책 등이 한국경제 성공에 건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수출을 강조하면서 통행 금지 시절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게 수출할 물품을 싣고 옮기고 있다고 하면 통과되던 시절이었다는 일화가 회자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수출액을 1순위로 챙기면서 당시 상공부 장관은 얼마를 돌파했다고 올먹이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일화도 있다.

제프 뉴젠티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이 정부 주도로 경공업 중심의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이뤄냈으며 이러한 변경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지난 반세기 경제 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한국을 꼽을 수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 한국의 제도가 경제 수준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수렴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1980년대부

터 민간의 R&D 투자가 급증해 현재 GDP 대비 R&D 투자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R&D 투자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 원장은 전쟁과 농지개혁으로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성공이 능력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이 노력의 결집, 수출장려정책을 통한 기업들의 해외경쟁 노출,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건설과 교육 부문에 집중한 것 또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인디애나대 교수도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GDP 대비 R&D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높은 기술 수준과 교육 수준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역할도 언급했다. 송병

준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뒤에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산업발전을 주도한 정부 뿐 아니라 신산업에 투자하고 신시장을 개척, 신기술 개발에 매진한 기업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의 대표로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컨퍼런스 오찬사에서 성공요인으로 “무엇보다 패화와 화절을 딛고 일어난 한국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 피땀 어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한국인의 정신을 한국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장관은 “우리의 모든 가치와 이상이 무참히 허물어져 버린 상처 위에서 쉽사리 60년을 달려온 오늘 한국은 선진국들이 200년 이상 걸린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60년내에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 사공일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진단도 눈에 띄었다. 사공 위원장은 ‘올바른 인센티브 매커니즘’의 역할을 강조했다.

50년대에는 수입 대체 쪽에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했다면 이후 수출 쪽으로 정부의 인센티브 체계를 바꾸었다는 설명이다. 관리들이 제도를 만들어주니 기업가 활동이 왕성해지고 시장 기능이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사공 위원장은 올바른 인센티브 매커니즘이 경제를 활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근명성을 중요시하는 가치, 교육열 등이 강력한 리더십과 결합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한선 기자 griffin@

죽도록 달리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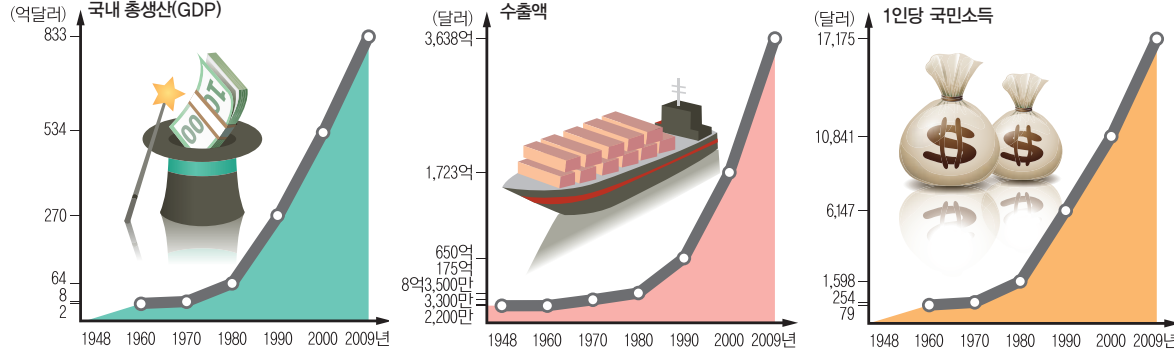
하루 945명의 교통사고 피해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800여명, 부상자는 무려 33만 8천여명
하루 평균 945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

손해보험협회

속도를 줄여주세요, 소중한 생명이 되살아납니다

〈주요 경제지표 추이〉



■ 향후 과제

“한국, 다문화사회 제도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다문화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박사는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인디애나대 교수는 인구의 다양성이 보장되어 야만 지식 흡수 능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생산성 증대만으로는 인구 대책에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민 정책도 노동 정책의 감소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제프 뉴젠티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높은 교육수준에서 비롯된 바가 크지만 확실히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 고용노동사회국 헤르빅 이머폴 박사는 여성 취업률이 높으면 저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가장 친화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는 노령화에 대비한 시스템 혁신, 노동수요의 다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발전과 관련 다카시 오니시 동경대 교수는 지역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지역개발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별로 다양하게 기능을 분산시키고 도시들이 총체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군으로 발전시켜 서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권원용 서울시립대교수는 주요 산업정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지역개발정책을 시행하면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중앙과 지방세간의 세원교환을 통한 세제 합리화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한선 기자 griffin@

■ 압축성장의 문제점

금융감독 부실·소득 분배의 악화 등 그늘도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 경제 60년사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언급됐다.

현오석 KDI 원장은 정부주도 성장전략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면서 금융시장 왜곡과 기업부실정리를 위한 거듭된 정부개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기업부채 급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특혜를 배경으로 재벌이 성장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했으며 정책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증발로 물가불안이 고착화 되고 노동운동의 억압으로 노

동운동이 정치화, 과격화됐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에는 금융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과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외환위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외환위기 이후 개혁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고 현 원장은 평가했다.

현 원장은 또 한국경제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제조업-서비스업, 중화학공업-경공업,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 고용률 정체, 교육경쟁력 취약, 소득분배 악화를 사례로

들었다. 사공일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에 겪은 외환위기는 정부와 기업이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시 오니시 동경대 교수는 한국의 경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지적했다.

OECD 고용노동사회국 헤르빅 이머폴 박사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행, 노동시장의 경직성, 낮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한선 기자 griffin@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채용확대 하고...

대기업들 상생실천 본격화

대기업들이 협력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채용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생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상생 실천에 본격 나서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1일 협력사 지원을 2, 3차 협력업체로 늘리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선포식을 연데 이어 SK그룹은 2일 채용 확대, 사회적 일자리 1만개를 양성하는 상생종합대책을 내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포스코, LG그룹 등도 상생펀드 조성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강조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성과는 협력사의 경쟁력 없이는 나올 수 없다"

며 "이전부터 꾸준히 실행해오던 상생방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2일 30% 확대한 2600명 신규채용,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SK는 이번 대책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 24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 중소기업과 서민이 자체 경쟁력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이라며 "SK 각 관계사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차 역시 지난 1일 상생협약을 2, 3차 업체로 확대하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

약' 선포식을 열었다. 이 선포식에서 현대기아차의 216개 협력업체는 2460개에 달하는 2, 3차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맺었다. 현대기아차가 1차 협력사에 해주듯이 1차 협력사가 2, 3차 업체에게 상생을 실천하면 1차 업체에게 더 많은 물량을 몰아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업체는 이를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상생경영 7대 실천 방안'을 내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과 철관, 레진 등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협력사에게 조달하는 사급제도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지난달 18일 '포스코 패밀러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통해 1차 업체에 대한 납품 단가 인상이 2, 3차 업체에게도 돌아가도록 했다. 협약에는 협력사와의 수익 공유 확대와 결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LG그룹은 하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나 늘어난 규모인 73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LG그룹의 채용 규모는 1만5000명이 된다.

또한 LG그룹은 지난달 12일 협력사에 7400억원 금융지원, 협력회사를 통한 장비 및 부품소재 국산화 확대 등이 담긴 '상생협력 5대 전략과제'를 발표 한 바 있다.

최재혁 freshphase@

가격비교 '웹' 갈까 '앱' 갈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쇼핑'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 웹 브라우저 상에서의 가격비교도 경쟁력을 갖추는 등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풍부한 쇼핑 콘텐츠와 상품정보로 무장한 '모바일 웹' 가격비교 서비스인 '쇼핑하우'를 오픈했다. 또 네이버는 포털 최초로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 판매점 별로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여 모바일과 온라인의 경계를 초월한 '가격비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근엔 개선되기는 추세다.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상에서와 같은 카드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 SK텔레콤은 지난 8월8일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안심클릭 결제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심클릭 결제는 기존 유선 인터넷 결제와 유사한 방식이면서도 보안성과 편리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처럼 '모바일 쇼핑'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자 상품정보 검색분야에서 최고 점유율을 자랑하는 NHN의 검색포털 네

이버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는 가격비교가 불가능했던 두부, 야채, 생선

등 식품류를 비롯, 생필품에 대한 물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생활에 근접한 서비스로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반 기업체가 아닌 한국소비자원에서 DB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동기가 있으며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식식쇼핑'과 같은 서비스도 향후 모바일로 최적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다음, 모바일 웹 '쇼핑 하우' 오픈 네이버선 판매점별 가격 정보 제공

먼저 그동안 다음의 모바일 웹 '쇼핑 하우'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가격비교를 해보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실제 쇼핑을 하다가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 막막할 때도 있다. 이럴 때 '쇼핑하우'는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시 최저가 정보는 물론 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의 기간별 가격 변동 추이를 알려주기 때문에 IT 기기의 경우 향후 가격 동향을 예측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김지현 다음 쇼핑기획팀장은

"모바일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찜' 하면 나중에 유무선 연동을 지원해 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온라인 웹 상의 가격비교도 모바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플래시가 깨지거나 글씨가 작게 나오는 등 보기 불편했지만 '쇼핑하우'는 독립된 페이지로 모바일 화면에 적합하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로 가격비교는 가능했지만 바로 결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온라인 웹상에서 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최

떠오르는 SNS... "운용은 쉽지않네"

기업들, 전문인력 부족·민감한 사항 질문 곤혹

기업들이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떠오르고 있으나 운용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NS를 관리할 전담 인력 부족으로 SNS의 실시간 운영에 곤혹을 겪는 가 하면 신제품 출시 시점 등 해당 기업에게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때는 난처해지기도 한다.

SNS 운용을 담당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SNS는 잠시라도 방치하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두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며 "인력 부족이나 업무시간 연장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SNS 관리 업무는 대부분 기업의 홍보팀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흥

보팅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SNS 활용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SNS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것도 기업 홍보팀에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할 사이트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블로그에 그쳤던 SNS는 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SNS를 활용하려는 기업도 소비자의 흐름에 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LG전자는 현재 SNS로 블로그와 트위터(@LG_TheBLOG)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관리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페이스북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으로 문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트위터에 신제품 출시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때는 당혹감을 겪기도 한다. 대기업의 한 홍보팀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 시점은 소비자들과 시점이 당연히 궁극해 하는 사항이지만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는 일정한 형식을 두고 대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트위터(@samsungtomorrow)에는 "갤럭시S 프로요 업그레이드를 개발 중"이라는 똑같은 문구의 답변이 하루에 여러 개 올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은 SNS 참여를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기업 이미지 개선, 비판적 여론 수용 등의 실리를 얻고 있다. 이에 블로그의 필진을 사내 직원으로 확대하거나 SNS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SNS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최재혁 freshphase@

갤럭시S, 밀리언셀러 스마트폰 등극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국내 처음으로 밀리언셀러 스마트폰에 등극했다.

갤럭시S는 이번 100만대 돌파로 국내 스마트폰 최초로 밀리언셀러 스마트폰으로 기록되는 한편 출시 70일 만에 100만대 판매를 기록하면서 국내 휴대폰 사상 최단 기간 밀리언셀러 신기록도 갈아치웠다. 이 같은 기록은 지난해 최고 히트 모델인 '연아의 햅틱'이 달성한 출시 7개월 만인 약 210일 만에 100만대 판매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빠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내 스마트폰 전체 예상 규모 약 500만대 중 갤럭시S 단일 모델로만 국내 스마트폰 전체 4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갤럭시S의 인기 비결은 4.0형 슈퍼아몰레드(AMOLED), 초슬림 디자인, 사용 편의성이 강화된 사용자 환경(UI), 빠른 구동 속도 등 첨단 기능과 교육, 교통, 쇼핑 등 국내 생활 밀착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이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구매자의 82% 이상이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삼성앱스'를 이용, 애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530만건 돌파 등 국내 애플리케이션 대중화에도 견인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근득 기자 lob13@



굿바이! 아날로그 방송 '디지털 방송 전환 선포식'이 지난 1일 울산 엑스포 영상관에서 열렸다. 울산군이 국내최초 디지털 방송 완전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전국 디지털 방송 전환의 전기가 마련됐다.

SK네트웍스 글로벌 레저·관광산업 참여 'SK 핀크스' 출범...관광산업 발전 이바지

SK네트웍스가 제주 핀크스리조트 인수와 함께 부동산 통합법인 'SK핀크스(SK Pmx)'를 출범시켰다. 이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중국 및 아시아 VVIP 고객 대상의 글로벌 레저·관광사업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SK네트웍스는 제주 핀크스 리조트를 730억원(부채 인수조건)에 인수했다고 5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레저·관광사업 등 부동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핀크스 리조트를 중심으로

로 하는 부동산 통합법인 'SK핀크스'를 출범시키고 신입 대표이사인 SK네트웍스 사내이사인 김세태를 선임했다. 이창규 SK네트웍스 사장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레저·관광사업의 성장잠재력이 증대되고 있다"며 "레저·관광사업은 고용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사업인 만큼 성공적 사업 전개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경주 기자 ahnjk@

금호타이어 창립 50돌 "역경 딛고 새 역사 쓸 것"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금호타이어가 1일 서울사무소 및 광주 공장에서 임직원 및 주요 고객, 협력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0주년 창립기념식을 열고 새 도약을 다짐했다.

광주 공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금호타이어 김중호 사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과거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진과 도약을 결의하자"며 선후배 임직원들의 업적에 감사사를 표했다.

심홍수 기자 shs@

성공학점은행 | baeumland.com

“이제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하자”



[전체학과 수석합격 / 최고령(75세)합격 / 최연소(19세)합격]

1년만에 독학사 전체학과 배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1년 3개월만에
91년생 독학사 최연소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35년생 독학사 최고령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최단기
학사 취득의
문이 활짝!!!

- ① 단기간에 학위가 필요하신 분
- ② 고졸자로 단기에 학위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
- ③ 전문대 졸업자로서 정규대학 학사편입을 원하시는 분
- ④ 서울 중위권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분
- ⑤ 독학사, 방송통신대, 정규대를 중도 포기하신 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 4227호 : 1990. 4. 7)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사시험은

1990년 대통령령 4227호에 의거 4년제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1년 동안 단계(3월, 6월, 9월, 11월)에 맞는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학사학위취득 시 취업, 승진, 대학원진학, 학사편입 등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성공학사고시

www.baeumdhs.com

자료 및 상담무료

1644 - 8144

‘즐기는 TV’ 글로벌시장 주도권 잡기 불꽃경쟁



윤부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TV 개발자의 날' 행사에서 "2010년은 전세계 TV업계와 TV 시청 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앱스’로 기선제압 나서

美이어 내년 유럽 진출...국내에서도 체험마케팅 강화



삼성전자가 LED TV, 3D TV에 이어 글로벌 스마트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최초로 TV용 앱스토어 '삼성앱스'를 선보인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TV용 '삼성 앱스'의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에 나선데 이어 내년에는 유럽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TV도 스마트폰 처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확보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쟁상대인 구글 및 애플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TV에 코시시스템도 창출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TV 개발자의 날' 행사에서 윤부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스마트TV 등 새로운 TV 시대에 대해 "2010년은 전 세계 TV업계와 TV 시청 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스마트 TV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소비자 특성에 맞게 특화된 로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에서 삼성 앱스 콘텐츠를 실시하는 등 개발자와 소비자, 제조업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IT·콘텐츠·유통·스포츠웨어 등 스마트 TV 에코시스템과 관련된 다

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삼성 스마트 TV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어 줬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을 비롯해 판도라 창업자이자 CSO(Chief Strategy Officer)인 팀 웨스터그렌(Tim Westergren), ESPN의 CTO인 척 파가노(Chuck Pagano), 베스트바이(Best Buy)의 CTO인 로버트 스테판(Robert Stephens), CNET 수석 에디터 브라이언 콜리(Brian Cooley) 등이 연설자로 나섰다. ESPN의 CTO 척 파가노는 "삼성 앱스를 통해 스포츠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리모컨으로 당일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 스포츠 팬들의 시청 환경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며 "삼성 앱스에서 제공되는 ESPN의 'Next Level'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스포츠 애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패키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도 스마트TV에 대한 체험마케팅을 강화하며 소비자 시선끌기에 힘쓰고 있다. 이 회사는 전국 500여개의 삼성디지털프라자에 삼성 스마트TV 체험존을 마련했다. 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고객들은 삼성파브 스마트TV 체험을 통해 미래 홈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 김의탁 상무는 "고객들의 주거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디지털프라자에 스마트TV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며 "고객들이 삼성파브 스마트 TV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접 체험해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PC에 버금가는 SNS로 진화 구글·애플·삼성전자·LG “시장 선점하라” 한판 대결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노래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신곡을 부른다. 스마트폰이나 PC안의 콘텐츠를 무선으로 공유해 쉽게 볼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궁금한 배우와 감독의 정보, 시나리오 등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궁금한 선수의 프로필도 즉시 찾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PC 이야기가 아니다. 차세대 TV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TV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뒤를 이어 스마트TV 열풍이 거세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한판 경쟁을 시작했다. 구글은 인텔, 소니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구글TV를 내놓고 애플도 애플TV를 준비 중이다. 세계 TV시장 1위인 삼성전자도 TV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며 스마트TV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TV란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처럼 TV에서도 스마트폰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PC처럼 운영체제(OS)와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됐고 인터넷 접속도 자유롭다. 스마트TV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TV는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바라보기만 하는 일명 '바보상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스마트TV로의 진화는 TV를 PC에 버금가는 SNS도구로 변모시키며 '바보상자'란 불명예를 씻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드라마, 스포츠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TV를 정보의 보고로 만든다. TV를 보며 채팅도 하는 등 SNS 서비스도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가족과 함께 보던 TV가 나만의 TV로 변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세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스마트TV의 출시가 이어지면서 이에 걸맞은 리모컨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TV의 사용자 친화성과 이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영화감상부터 인터넷 이용,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게임,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TV의 능력을 소화해 줄 리모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G전자가 내놓은 리모컨을 잡은 손의 움직임을 인식해 작동하는 '매직 모션 리모컨'이 대표적이다.

LG경제연구원 한영수 연구원은 "TV 산업의 스마트화에서 누가, 어떤 사업모델이 경쟁 우위를 차지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소비자 맞춤형과 소셜 네트워크화된 서비스를 가장 편리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etoday.co.kr



LG전자는 오는 3월(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IFA 2010'에서 스마트TV를 첫 공개할 계획이다. LG전자 도우미가 시연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편의성 극대화... 'IFA'서 첫 선

개방성 등으로 승부...내년초까지 콘텐츠사업자 확보



LG전자가 차세대 TV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TV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LG전자는 TV를 통해 프리미엄 콘텐츠와 다양한 TV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TV를 3월(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10'를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LG전자의 스마트TV는 '무한 콘텐츠로 가는 가장 쉬운 관문(The Easiest Gateway to Limitless Contents)'이라는 콘셉트로 LG전자의 자체 스마트TV 플랫폼인 '넷캐스트(NetCast) 2.0'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쉽고(Easy), 재미있고(Fun), 더 많고(More), 더 수준 높은(Better) 프리미엄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TV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와 입력 장치로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홈 데스크보드(Home Dashboard)로 이름 붙여진 스마트TV의 GUI는 ▲실시간 방송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등 프리미엄 콘텐츠 ▲앱 스토어 ▲선호 채널 ▲추천 콘텐츠 등을 각각의 카드 형태로 한 화면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TV의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누구나 여러 화면을 거치지 않고 한 눈에 확인할 단 한번의 클릭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리모컨을 잡은 손의 움직임을 인식해 작동하는 '매직 모션 리모컨'도 기존 바 형태 외에 PC 마우스 모양의 리모컨이 추가돼 마치 PC를 사용하듯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또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도 공을 들였다.

앱 스토어의 TV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오락, 게임, 생활, 교육, 뉴스/정보 등 카테고리로 구분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최신, 인기 애플리케이션을 다룬 분야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린이를 위한 두뇌개발 색칠공부에서부터 성인을 위한 생활 속 긴급상황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시연되며, LG전자는 내년 초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대거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이나 PC안의 콘텐츠를 무선으로 공유해 스마트TV로 쉽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와 감독의 정보, 시나리오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 TV에 보여주는 미디어 링크 기능을 통해 한 차원 진보된 N 스크린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내년 초까지 영화, 방송 다시보기, 스포츠, 방송사업자 등 지역별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사업자를 중심으로 120개 이상의 프리미엄 콘텐츠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HE)사업본부장 강신익 사장은 "스마트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 콘텐츠와 서비스, 최고 수준의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스마트TV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을 강타한 브로드웨이 최신 흥행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

MUSICAL

ROCK OF AGES

2010.9.15 ~ 10.30 우리금융아트홀

프로듀서 | 김선미 | 연출 | 왕용범 | 음악감독 | 이성준 | 인무 | 서병구

주요 출연 | 신성우 | 정찬우 | 안재욱 | 김진수 | 남윤철 | 문성혁 | 김재민 | 백민정 | 배유빈 | 최민철 | 백주희 | 홍승아 | 문해원 | 제이 | 다나 | 선데이 | 콘류 | 서지훈 | 제이

주최 | 부활(김태원 | 최재민 | 서재혁) | 이수용 | 김형석 | 임원빈(VINK) | DEVIN | 정구원(NIEN)

www.mmusical.co.kr | www.rockofages.co.kr

대형마트가 물고온 PB제품 돌풍이 TV홈쇼핑에도 불고 있다. TV홈쇼핑업계는 상품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자체상품(PB)과 단독상품을 강화하고 나섰다. 가격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할인점의 PB 전략과는 달리 홈쇼핑의 PB확대는 타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단골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PB는 고객의 니즈와 소비 패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유통사가 직접 기획과 운영을 맡기 때문에 변화하는 고객의 선호도를 시준 제품에 반영하고 마케팅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TV홈쇼핑 PB제품은 연예인들의 의류와 속옷 등 패션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최근 미용, 주방, 식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매출도 일 반상품보다 10~30% 높은 추세다. 또한 각 사들은 단독 브랜드 런칭에도 주력하고 있다. 홈쇼핑사 MD들이 상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맞춤형' 단독 상품들은 다른 홈쇼핑과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해 매출 기여도가 높다. PB와 단독 상품은 유통사가 기획 단계부터 제조사와 함께 협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PB는 상품의 재고까지 유통사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선애 기자 isa@

미용·식품까지 ‘Only One 브랜드’ ... 매출 일등공신

고품격 주방기기 ‘엘룩’ 효자상품

고객 요구 반영 ... 협력사와 브랜드 공동개발 나서

LOTTE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홈쇼핑의 상품기획력과 협력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브랜드를 공동개발해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상품을 선보이면서 홈쇼핑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롯데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을 집계한 결과 13만6000개가 팔려나간 롯데홈쇼핑 단독상품 '엘룩 세라믹 냄비'가 1위를 차지했다. 롯데홈쇼핑이 품질개발에 공동참여해 지난해 1월에 론칭한 고품격 주방기기 브랜드 '엘룩'은 현재까지 누적매출 27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스테인리스 냄비의 인기에 힘입어 리뉴얼해 선보인 '엘룩 세라믹 냄비'의 경우 3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1월에 론칭한 웰빙 침구브랜드 '더 잠(The Zzzam)'도

롯데홈쇼핑과 협력사가 공동 기획한 브랜드다. 방송시간을 고정 편성에 인지도를 높이고 가격대비 뛰어난 디자인으로 여성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올 상반기에만 8만9000세트가 판매됐고 현재까지 누적매출이 18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홈쇼핑 단독 디자이너 브랜드 '화숙리', '최복호'도 40~50대 중장년층 여성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효자브랜드다. 2006년 9월 론칭 이후 누적 매출 630억원을 돌파한 이화숙 디자이너의 여성류 브랜드 '화숙리'는 2008년, 2009년에 롯데홈쇼핑에서 올베스트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도 월 2~3회 방송만으로 이미 10만세트가 판매됐다. 디자이너 여성류브랜드 '최복호'도 올해 상반기 히트상품 10위권에 새롭게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 누적매출 1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신재우 전무는 "고객의 니즈를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상품에 반영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공동으로 상품 개발에 나섰다"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고품질의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에 더 나아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협력사 공동개발 브랜드를 확대해 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GS SHOP

GS샵은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물, 카탈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20~30대 고객을 잡기 위한 패션, 생활주방용품 카테고리에서 시작, 최근에는 전 상품군으로 단독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GS샵은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이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는 '맞춤형' 단독 상품을 늘리고 있다.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상품력 있는 상품을 홈쇼핑 특성에 맞게 단독상품으로 개발해 적극적으로 육성 및 판매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별화와 함께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의 강력한 마케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과 브랜드 권리를 협력업체가 소유하기 때문에 상품이 성공할 경우 타 유통채널로 판매처를 확장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 모델이 되고 있다. 홈쇼핑 업계의 대표적인 맞춤형 단독상품의 성공 사례는 GS샵의 '조성아 루나'다. 2006년 9월 GS샵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판매수량 140만 세트, 판매금액 1400억원을 달성한 홈쇼핑 초유의 히트 상품이다.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유명한 '조성아 원장'과 화장품 제조사인 '애경산업', 그리고 유통사인 'GS샵'이 개발 단계부터 함께 해 대량 생산과 유통을 통해 품질은 높이고 가격 거품을 걷어낸 전략이 주효했다. 유럽형 전기 그릴을 한국 식습관에 맞도록 탈바꿈시킨 '프린세스 전기그릴'도 GS샵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출시 후 10개월 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또 주방생활 전문기업 코맥스와



1년 간 공동 개발한 친환경 밀폐용기 '클로켄' 역시 13만개를 판매하는 등 주방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GS샵 이해원 과장은 "고객의 소리를 최전방에서 듣는 유통업체가 상품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상품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객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사에 신상품 개발자금 지원

이오디 김동수·엘라호야 대표적... 리빙 제품으로 확대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은 개국 초기부터 상품 개발 단계에서 제조회사나 홈쇼핑 협력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단독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를 운영해 왔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지난 2001년 론칭한 이오디김동수(의류)와 2005년 9월 텔런트 변정수 씨와 손잡고 내놓은 의류브랜드 '엘라호야', 2010년 3월 론칭한 이경민의 크로키(화장품) 등이 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방송하고 있는 변정수의 엘라호야는 패션모델 출신 텔런트 변정수 씨가 직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해 만들어낸 패션 의류브랜드로 지난 2009년 한 해 300여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현대홈쇼핑 의류상품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품질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월14일 론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의 색조화장품 크로키(Croquis)는 70분 만에 6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평소 같은 시간대에 화장품을 방송했을 때 3~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한편 단독 브랜드는 패션 품목에서 주방용품 등 리빙 상품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홈쇼핑이 판매하고 있는 팰러스 멀티핸들 세라믹팬은 지난 2008년 8월 첫 방송을 하고, 지난 2009년 한 해 270여원의 매출을 올린 인기 상품이다. 냄비에 손잡이를 탈부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팰러스 세라믹팬은 2010년 상반기 현대홈쇼핑 히트상품 4위에 선정될 만큼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단독 브랜드의 성공은 홈쇼핑사와 협력사간의 상호 협력과 적극적인 상품 개발 노력이 바탕이



된다. 현대홈쇼핑은 우수 협력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해 상품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 사정으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정한 평가 기준을 통해 선발하고 개발 자금을 지원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운 상품의 개발에 집중하도록 했다. CJ오쇼핑 신시열 상품사업부장은 "독점 상품이 크게 히트할 경우 해당 유통업체의 다른 상품 매출까지 동반 상승하게 된다"며 "특히 홈쇼핑 업계의 경우 인기 상품이 나오면 유사 상품이 경쟁 채널에서 곧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이나 가격에서 확실히 구분되는 단독 브랜드를 키우는 것만이 차별화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동료들과 [같이] 먹은 점심

녀석들과 [같이] 간 훈련소

가족과 [같이] 가꾼 텃밭

친구들과 [같이] 댄스

손녀와 [같이] 걸은 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 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에 [같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NH농협이 만들어가는 [같이]사는 세상입니다

같이의가치

기획 단계부터 제조사와 협업체제

피델리아·셀렙샵 2개 브랜드... 상품 소싱센터 조직 신설

O Shopping

CJ오쇼핑은 '피델리아'와 '셀렙샵' 2개 PB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제조사와 함께 협업하는 단독 브랜드 상품은 20여 종에 이른다. 또한 시즌 별로 기존 제품과 다른 패키지를 기획해 일정 물량을 직매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직매입을 통해 판매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이익률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어 일석이조인 셈이란 게 회사측 설명이다. 피델리아는 2001년 론칭 이후 9년째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효자 브랜드다. 브랜드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오너십(Ownership)을 CJ오쇼핑이 직접 가지고 있는 만큼 홈쇼핑 고객의 취향과 선호도를 매 시즌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노후화 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디자이너를 영입하거나 한정 수량만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 라인을 선보이는 등 꾸준히 브랜드 육성에 힘을 쏟은 바이기도 하다. 패션 PB인 셀렙샵은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젊은 디자이너와 손잡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최신 유행의 고급 패션 상품을 선보인다. 스타의 이름을 걸고, 이들이 제안하는 스타일을 상품화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점이 강점이다. CJ그룹 계열사인 CJ미디어의 XTM 채널과 함께 해당 연예인이 등장하는 패션무비를 제작, 방송에 활용하는 등 PB이기에 가능한 마케팅도 눈에 띈다. CJ오쇼핑이 상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맞춤형' 단독 브랜드도 매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PB·단독 브랜드 상품 런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상품소싱(Sourcing) 개발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산하 인력은 새로

“신이 내린 과일” 맛도 영양도 ‘베리 굿’

최근 3% 블루베리에 포도농축액을 대량 섞어 100% 블루베리 주스라고 속여 팔던 업자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블루베리를 이용한 사기극이었다.

블루베리 인기는 웰빙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몸에 좋은 식품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블루베리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02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 푸드에 꼽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블루베리가 시력보호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데 유용하다는 사

‘신이 내린 과일’이라는 칭송을 듣고 있는 블루베리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시력보호, 혈압 강화에 효과적인 영양식이다.

블루베리의 보랏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이 가장 중요한 성분의 핵심이며 이 성분은 포도에 비해 30배 이상 많이 함유돼 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유럽, 일본 등에서 행해진 연구결과 보라색채료가 눈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블루베리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시각기능의 향상, 야간시력의 향상, 시야확대, 백내장이나 녹내장 방지에 효과를 나타낸다. 또 블루베리는 섬유질과

시력보호·다이어트 효과… 건강식품 각광 웰빙붐 타고 재배농가 늘어 가격도 떨어져

실이 알려지면서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블루베리 농가가 하나 둘 늘면서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최근엔 대형마트에 가셔도 블루베리 생과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블루베리 재배 농가는 지난해 보다 매출이 2배 이상 폭증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블루베리 농축액의 가격은 1kg에 3만 원으로 포도보다 6배 정도 비싸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천리 블루베리타운의 경우는 블루베리를 지역특산물로 선정해 블루베리를 이용한 소스와 와인 개발 등 각종 가공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7~8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충북의 한 농원은 소비자들의 체험투어와 생과일 구입 문의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활용된다.

이밖에도 블루베리는 항산화효과가 뛰어나 암이나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다. 또 뇌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며 뇌졸중이나 심혈관 계통의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어떤 과일보다도 비타민 및 각종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블루베리 전문가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블루베리가 인기가 높아졌다”며 “특히 어린이나 성인 모두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시력보호에 블루베리의 효능이 높다”고 설명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음료부터 화장품까지 ‘팔방미인’

친환경 유기농 생산… 가공제품 잇따라 출시

최근 몇 년 사이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블루베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되고 있다. 기존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생과나 잼 종류를 벗어나 음료, 제과, 제빵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 최초로 블루베리 누보를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 제품은 캐나다 식품검사에서 인증한 A등급 와일드 블루베리 품종을 사용한 것으로 설탕이나 방부제를 넣지 않은 100% 원액을 가열 농축이 아닌 착즙 방식으로 추출해 블루베리 유효 성분을 최대한 한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블루베리 음료를 출시했는데 고객 반응이 좋아 블루베리 누보를 새롭게 선보인 것”이라며 “출시 6개월째가 되고 있지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블루베리의 맛과 향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품은 블루베리 주스다. 정식품은 음료 브랜드 썬몬드를 통해 프리미엄급 주스 ‘건강담은’ 시리즈 3종에 블루베리 맛을 출시했다. 국동에치팜, 도투락, 천호식품 등에서도 블루베리 주스를 판

매하고 있다.

전통식품인 떡을 통해서도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는데 떡카페 프랜차이즈 ‘빛은’에서는 ‘우리살쥬케익 블루베리’를 맛볼 수 있다.

커피전문점에서도 블루베리를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카페베네의 ‘블루베리 라떼’ ‘블루베리 요거트 프라페노’, 엔제리너스커피의 ‘블루베리 스무디’ 등이 있다. 던킨도너츠도 최근 블루베리를 주재료로 한 ‘블루베리아사이 필드도넛’과 ‘블루베리코코넛’을 선보였고 파리바게뜨에는 우유푸딩에 블루베리의 상큼함을 더한 ‘로얄푸딩 블루베리’를 판매한다. 식품에만 블루베리가 제품이 쓰인 것이 아니다. 세제에서도 블루베리를 활용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슈가버블 ‘블루베리’는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를 해도 피부에 자극이 적은 주방세제다.

화장품업계에도 블루베리 열풍에 동참해 이니스프리와 토니모리 등이 블루베리를 이용한 팩을 출시했고 더페이스샵 ‘명함미인도 더할 나위 없는 환생고’에는 블루베리 성분이 들어있다.

곽도훈 기자 sogood@

패션에도 블루베리 바람

가방·구두·주얼리 등 활용 늘어

지금 패션업계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슈퍼 후르츠 블루베리와 사랑에 빠졌다.

지난 2002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푸드에 선정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블루베리는 이제 식품과 화장품에 넘어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타스넬라(Saiwa Vitasnella)의 과일 크래커 광고에 모델이 라즈베리와 보이젠베리로 만든 핸드백을 메고 나와 이슈가 됐다. “항상 당신과 함께 하는 과일향의 크래커”란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선보인 베리 백은 크래커보다 더 주목받으면서 패션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크리에이티브 포토그래퍼 풀비오 보니비아(Fulvio Bonavia)는 ‘A Matter of Taste’에서 블루베리로 만든 여성 백을 선보였다.

샤넬의 미니 체인백과 또 다른 맛을 선사하는 블루베리 체인백,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를 조합한 클러치, 블랙베리를 조합한 소퍼백까지.

블루베리가 악세서리 디자인에 열풍을 몰고 오고 있다. 블루베리 열매가 포인트로 장식된 구두를 비롯해 블루베리 모양의 펜던트, 반지, 팔찌 등 주얼리 제품에도 블루베리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블랙베리 핸드폰이 출시되는가하면 최근에는 블루베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방울방울 핸드폰 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날개듯이 팔려나가고 있다.

블루베리 디자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블루베리 색깔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블루베리는 이름 그대로 파란색 모양의 열매다.

시원한 이미지를 부과하지만 잘 익은 블루베리는 파란이 아닌 진한 보라색을 띤다. 패션업계 관계자

는 “보라색 귀족 과일의 대명사 블루베리를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게 되면 자연스레 고급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며 “블루베리의 색과 모양이 패션을 넘어 문화·산업 전반에서 두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블루베리 전도사’ 이진석 SNF 본부장



“블루베리 인기 식지 않을 것”

블루베리 신드롬에 정점을 찍은 음료가 있다. 신세계 백화점과 SNF(Slow natural Food)가 함께 내놓은 ‘반딧스 누보 블루베리’다. 지난해 12월 첫 수확한 햇 블루베리를 착즙 방식으로 추출해 영양과 맛을 살린 블루베리 100% 주스다. 블루베리는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A급으로 캐나다산 야생 품종을 사용해 질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세계와 이 음료를 공동 기획한 SNF를 주목했다. 식품회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회사가 신세계 80주년 기념 엠블럼이 박힌 ‘반딧

스 누보 블루베리’를 유통했기 때문. 음료출시뿐만 아니라 신세계 마산점에 헬스 베버리자라는 단일매장에 입성까지했다. 출시한 음료도 5개월만에 신세계백화점에서만 2만명이 팔리면서 블루베리 음료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블루베리 누보를 직접 기획한 이진석 SNF 본부장은 2002년 미국 선배집에 여행을 갔다 망고스틴 주스를 보고 슈퍼푸드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당시 미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홍삼엑기스를 조금씩 매일 복용하는 것처럼 망고스틴 주스를 소주잔 만한 컵에 조금씩 따라 약으로 마시고 있었다”며 회상했다. 이 본부장은 그때부터 망고스틴에 대해 관심을 갖

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놓은 첫 작품이 망고스틴 주스였다. 하지만 시장은 외면했다. 이 본부장은 “내가 좋아한다고 시장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망고스틴 주스가 실패만은 아니었다. 망고스틴 음료를 갖고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이번에 반딧스 누보 블루베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신세계 나선권 바이어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 시장이 원하는 것, 즉 반딧스 누보 블루베리를 국내 최고의 블루베리 음료로 굳히는 것이 단기 목표”라며 “회사가 지금보다 성장하고 때가

왔다고 판단될 때 지금 하이리빙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아시아베리 음료도 유통관로를 넓혀 슈퍼푸드 음료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블루베리 인기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인기는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수십년전부터 지속되어 온 힘이 근래들어 폭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5~6년전부터 당국에서 고부가가치 작물로 블루베리를 농가에 장려해 온 것을 주목했다. 농민들이 수년간의 실패를 거듭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블루베리를 수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블루베리는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블루베리는 꾸준히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ohee@



좋은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1세기형 문화 판촉물 월간 <여행스케치>를 선물하세요

월간<여행스케치>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펴내는 여행 전문 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차습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산과 계곡, 포구와 섬, 농산어촌마을, 진짜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맛집, 펜션이나 리조트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까?

- 자주 뵈지 못하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하세요.
- 매월 만나야 하는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매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증권회사 객장, 은행 객장, 우리 회사 대리점과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선물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다량 구매시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비용을 할인해드립니다.
-귀사의 홍보하고 싶은 신상품을 특별 지면에 홍보해드립니다.
*잡지 구매 및 문의 상담: 02-795-3364 이보영 사원

(주)하이미디어 P&I에서는...

귀사의 잡지와서보, 단행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귀사와 고객이 원하는 책을 기획해서 취재, 편집, 디자인, 제작, 발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드립니다. 강력하고 능력이 출중한 취재, 사진, 디자인,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예산에 맞춰 판촉물을 개발, 제작해드립니다.



[주] 하이미디어 P&I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1-1 하이미디어빌딩
홈페이지 www.ktsketch.com Tel 02-795-3364, 6634

:: 좋은 판촉물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주] 하이미디어 P&I와 이투데이는 기획과 제작, 마케팅을 함께하는 제휴회사입니다.

www.DSshop.co.kr

동성제약주식회사

트러블 피부를 위한 뿌리는 에센스!

꿀벌의 벌침액(봉독) 함유 화장품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트러블 피부를 위해 스킨과 에센스를 하나로 -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이제 간편하게 뿌려만 주세요~

차원이 다른 피부 트러블 케어 -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 농촌진흥청과 동성제약 중앙연구소의 공동개발로 탄생한 꿀벌의 벌침액이 함유되어 민감한 트러블 피부에 좋습니다.
- 빠른 피부 침투로 피부의 진정 효과가 우수한 워터 에센스입니다.
- 파우치에 에센스 원액만 담아 미세한 안개처럼 분사되는 특수용기입니다.
- 벌침액 성분이 손상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 흘러내림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메이크업 한 후에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흘러내림 NO! 뭉침 NO! 간편하고 위생적인 워터 에센스

미세한 안개분사 방식 미스트 타입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일반 워터 스프레이

위생적인 파우치 질소 충전 용기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일반 워터 스프레이

*에이씨케어 워터 에센스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울긋불긋 민감한 피부! • 피부관리가 필요한 등과 가슴의 피부! **NAVER** **동성이샵** 네이버 검색창에 동성이샵을 검색해 보세요.

■소비자 상담번호 : 080-777-0055

LG패션 국내 최대 스포츠숍 오픈

1500평규모 구로점...인터스포츠와 제휴 시장공략 나서

LG패션은 지난 3일 ‘인터스포츠’ 구로점을 오픈하고 “계적인 스포츠 멀티숍 브랜드 인터스포츠가 오는 3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본격적인 국내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포츠의 즐거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철학과 함께 지난 40여년 간 전 세계 38개국에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인터스포츠는 LG패션과 지난 2009년 4월 국내독점 영업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인터스포츠 플래그십 스토어 구로점은 국내 스포츠 멀티숍 매장 중 최대 규모(2개층, 1,500평)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터스포츠 매장 중에서도 10위권 규모로 꼽힐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등 팀 스포츠 제품을 비롯해 휠스포츠, 수영, 아웃도어, 캠핑, 낚시 등 25개



체험형 멀티스포츠숍 ‘인터스포츠’는 3일 오전 서울 구로점을 오픈한 가운데 매장 직원들이 제품을 확인 하고 있다. 고미란 기자 photoeran@

존(ZONE) 총 2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와 약 1만여 종, 20만점의 제품이 초보자에서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 구성 되어 있다.

국내 유일의 스포츠 전문 쇼피

공간답게 인터스포츠 구로점은 매장 곳곳에 제품을 만져보고 다뤄볼 수 있는 5개의 체험존이 구비돼 있다.

최고의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제품을 제공한다는 인터스

포츠의 철학에 맞게, 고객들은 야구, 요가, 탁구, 암벽클라이밍, 위(Wii)게임존 등 실제 체험을 통해 제품들을 비교 후 구매할 수 있다.

또 차별화된 제품이나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탈리아 테니스웨어 전문 브랜드인 ‘세르지오 타키니’와 전 세계 럭비 관련용품 시장점유율 1위인 뉴질랜드의 ‘켄터베리’, 스노우보드 전문 브랜드인 ‘버튼’ 등 전문성이 강화된 희귀 브랜드를 단계적으로 폭넓게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본길 LG패션 사장은 “LG패션은 패션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며, 패션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인터스포츠 사업의 본격 전개로 스포츠가 주는 건강한 즐거움을 통해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전해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백화점들 “불별더위 고마워”

롯데·현대·신세계 8월 매출 20% 안팎 상승

무더위와 바캉스 효과로 8월 한달 백화점 매출이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8월 한달 동안 전국 29개 점포를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매출 신장률 20.9%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부산 광복점과 올해 GS리테일로부터 인수한 중동점, 구리점, 안산점 등 4개 신규 점포를 제외하더라도 매출 신장률은 10.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8월 중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리며 가전 제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3.8%의 신장세를 보였다.

또 바캉스 시즌을 맞아 선글라스, 여행가방, 샌들 등 잡화 상품 매출이 14.3% 늘었고, 수영복, 원마일웨어 등 스포츠, 용품과 아웃도어상품 매출도 각각 17.4%, 18.7%나 증가했다.

이밖에 식품 14.5%, 구두 11.2%, 여성류 5.3%, 남성의류 4.6% 등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도 전국 12개 점포의 8월 한달 동안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수입의 류가 32.7%의 매출 신장률로 가장 큰 인기를 끌었고 스포츠 28.6%, 가정용품 26.4%, 잡화

13.9%, 영패션 의류 13.3%,남성의류 9.1% 등의 순으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8월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어컨 매출이 39.1%나 신장해 전체 매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여름 침구류 역시 29.1%의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8월 한달 간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여름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9월에는 추석 특수가 있는있는 만큼 매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김탁구’ 아류빵 잇따라 선보여

‘임탁구 빵’ ‘배부른 보리빵’...추억의 빵 인기



탁구빵에 이어 임탁구빵까지 나왔다.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가 시청률 40%를 돌파하며 인기가 치솟자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김탁구 빵이 속 속 출시되고 있다. 보리가 아닌 옥수수를 넣은 제빵왕 제품, 제빵왕 임탁구 등 아류 김탁구 빵도 나와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의 성심당은 제빵왕 임탁구라는 문구가 들어간 홍보물을 제작해 대전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성심당은 54년을 이어온 대전 지역 터줏대감 빵집으

로 지역신문에 제빵왕 김탁구라고 소개된 뒤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광주의 궁전제과에서도 “제빵왕 김탁구의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을 시도해 봤다”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보리밥빵을 출시했다. 이 제과점도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지역 대표 빵집이다. 지난달 23일에는 푸레쥬르가 ‘푸레쥬르 제빵왕 우리밀옥수수 보리빵’을 내놔다. 옥수수와 보리밥이 들어간 빵으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만든 빵을 연상시키고 있다.

관련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하

고 있다. 푸레쥬르 관계자는 “제빵왕 우리밀옥수수 보리빵이 올 상반기 돌풍을 일으킨 연아빵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빵의 크기가 커 가격이 비싼편인데도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드라마가 시작된 이후로 단팥빵 등의 매출이 2~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드라마 공식 협찬사인 SPC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드라마에서 소개된 빵을 그대로 제품화한 ‘주중콩단팥빵’, ‘배부른보리밥빵’ 등 9종을 선보였다.

‘배부른보리밥빵’은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 경합에서 김탁구가 만든 첫 빵으로 우리밀, 옥수수, 보리밥 등을 원료를 사용했다. 제품 형태도 드라마에 나온 빵과 똑같이 커다란 보리원맥을 형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김탁구빵을 표방한 여러가지 제품이 특히 지방 제과점을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다”며 “제과 업체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추억이 담긴 팔방 등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ohee@

‘11번가’에서 롯데마트 상품 산다

식품·생활용품 1만5000여개 품목 판매 제휴

SK텔레콤 오픈마켓 11번가는 롯데마트와 제휴해 식품과 생활품을 비롯해 가구, 의류, 가전 등 1만 5000여 개의 마트 상품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11번가는 롯데마트 제휴 입점

기념으로 오는 15일까지 최대 38% 할인 가능한 ‘11번가 입점기념 롯데마트 그랜드 오픈’ 행사를 전개한다. 또 추석을 맞아 과일, 갈비, 굴비 등 신선식품과 홍삼 등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290여 품목의

인기 명절 선물 세트를 한데 모아 저렴하게 판매하는 ‘추석 선물 대전치’도 함께 열린다.

‘당도선별 사과와 배 2호’(12개, 6kg)는 4만18130원, 1등급 이상 ‘한우 갈비 정육 세트’(3.2kg)는 17만 2660원, 정관장 홍삼정(240g)는 16만6500원에 판매한다.

배송의 경우 일 3회 예약배송(12~15시, 15~18시, 18~21시)으로 15시 이전 주문하면 당일 배송

이 가능하다. 신선식품의 확대와 함께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11번가 조원호 식품 그룹장은 “롯데마트 주력상품인 식품과 생활품 대상으로 특가 행사를 마련해 추석을 앞두고 고객들이 저렴하게 추석용품과 선물 구입이 가능하다”며 이번 제휴로 신선식품의 온라인몰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선에 기자 isa@

롯데칠성음료, 실론티 350ml 페트제품 2종

롯데칠성음료는 음료시장 스테디셀러 ‘실론티’ 350ml 어셉틱페트 제품 2종을 선보였다.

‘실론티’ 350ml 어셉틱페트는 코르셋 모양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마실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회사측은 실론티(레몬)는 지금까지 240ml 캔으로만 판매되고 있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양의 페트제품 출시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론티 350ml 어셉틱페트의 출시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신음기의 편리함과 품질 안정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

권을 넓혀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출시된 ‘실론티 아이스티’는 기존 360ml NB캔으로 나와 있던 제품을 350ml 어셉틱페트로 개선했다.

본연 그대로의 홍차에 복숭아 과즙으로 블랜딩해 맛과 향이 풍부하고 상큼함이 살아 있고 패키지에서도 식감을 돋구는 달콤한 복숭아의 일러스트를 사용해 아이스티만의 컨셉트를 강화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고농축 미백관리 프로그램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은 순수 비타민C를 함유해 여름 동안 강렬한 자외선으로 칙칙해진 피부톤을 환하게 집중 관리해주는 ‘퓨어 비타민C 10%, 8% 화이트닝 스팟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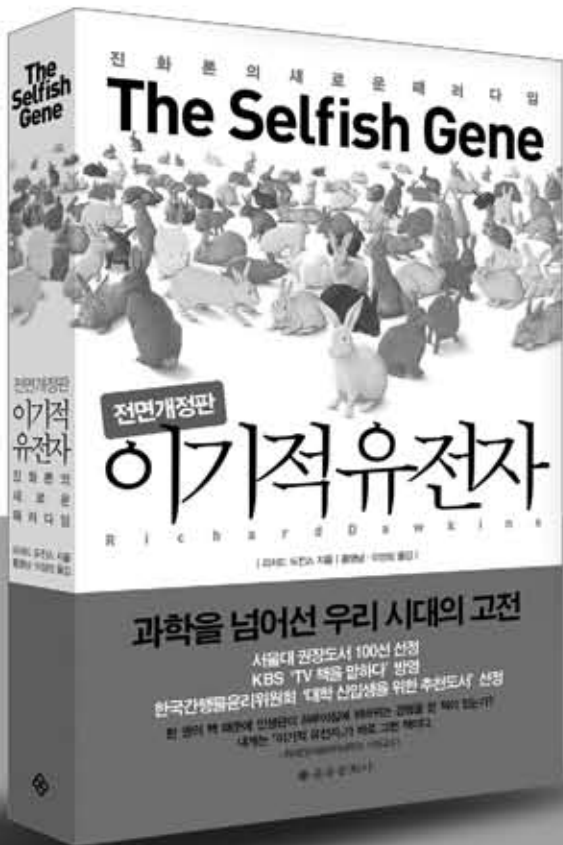
이 제품은 기존의 일반적인 비타민C 제품과 달리 물을 함유하지 않은 비수계 타입의 고농축 순수 비타민C가 들어있어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미와 주근개 등 잡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준다.

유기농 오렌지 오일과 자중해의 체이스트 트리에서 추출한 피토엔도르핀 성분이 손상된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전해 피부 유연성도 함께 높여준다.

‘퓨어 비타민C 10%, 8% 화이트닝 스팟 프로그램’은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10% 스팟’과 ‘8% 스팟’이 각각 2개씩 총 4개가 들어 있어 한달 동안 두 단계에 걸쳐 미백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선에 기자 isa@

과학을 넘어선 우리 시대의 고전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선정 · KBS ‘TV 책을 말하다’ 방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선정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내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그런 책이다.

—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독자를 천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대중과학서이다. — 뉴욕타임스

이기적 유전자

Richard Dawkins

리처드 도킨스 지음 | 홍영남 · 이상임 옮김 | 18,000원



전면 개정판 출간

올유문화사

TEL 02733-8153 FAX 02732-9154

“강남부자, 토지수익연계채권 좋아해”

年 4.2% 안정적 수익… 개인판매 3700억중 22% 사들여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의 대부분을 강남 부자들이 끌어담았다. 연 4.72%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에다가 토지매각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이다. LH공사와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31일까지 판매된 총 2조6000억원의 토지수익연계채권 중 우리투자증권에서 개인법인과 일반인에게 내놓은 대부분의 채권이 소진됐다. 우리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법인과 개인에게 할당된 5000억원 중 일반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2500억원과 1200억원 가량을 판매했다. 이 중 22%

인 273억원은 서울 강남에서, 강동과 강북에서 각각 177억원(15%)과 175억원(12%)가 팔렸다. 강남 부자들은 1인당 평균 9143만원을 사들여 강동 5480만원, 강서 6517만원에 보다 더 많은 채권을 사들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고객이 전체의 75%(450명)에 달했고 여성 매수자(812명)가 남성 매수자(772명)보다 40명 많았다. 이와 관련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LH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수익률이 높고 매우 안정적이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채권 같은 투자처는 없다고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로 자금이 몰린 것과 관련 강남 부자들이 타 지역보다 투자자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자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토지수익연계채권에 몰린 것으로 풀이했다. 토지수익연계채권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인 LH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공채며 특수채로 발행이후 5년 이후부터 매년 중도 상환요청이 가능해 안정적인 수익률이 강점이다. 수도권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발행했으며 연 금리는 국고채 5년물 +0.35%포인트, 표면금리는 3.5%로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4.72%.

LH공사는 이 채권을 지난 1999년 발행한 이후 처음이다. 이 채권 판매대행사는 우리투자증권(주관사)과 삼성증권, 동부증권 등 3개 증권사로 LH공사로부터 각각 1조2000억원, 8000억원, 6000억원 등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LH공사 관계자는 “토지수익연계채권은 땅값 상승에 따른 이자를 받을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보장수익률로 투자금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증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토지수익연계채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성일 기자 hsi@

3차 보금자리 ‘성남 고동’ 지구 제외 사전예약 물량 2차 절반…9000가구 그칠듯

오는 11월 공급 예정인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이 9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성남고동지구가 제외되면서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도 당초보다 줄게 됐다. 특히 8.29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종전 80%에서 50% 이하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3차 사전예약 물량은 2차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지정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3차 지구 5곳의 보금자리주택(민영 제외)은 총 4만8000가구(광명 시흥은 1단계 2만2000가구만 포함)로 성남 고동지구의 보금자리(2700가구)를 빼면 3만8100가구로

감소한다. 사전예약 대상인 공공분양(보금자리주택의 30%선)과 10년·분납 임대(20%선)는 이중 절반인 1만9000여가구로, 정부는 8.29대책에 따라 이 물량의 최대 50%만 사전예약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실시할 3차 사전예약 물량은 9000여가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흥수조절지 설치와 군부대 이전 협의 결과에 따라 분양물량이 축소될 수 있고, 2차 사전예약에서 10년·분납 임대는 사전예약의 비중을 공공분양보다 낮췄던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은 이보다 적은 7000~9000가구 미만으로 축소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

GS건설, 7400억 규모 UAE 송유관 공사 수주

GS건설은 지난 1일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의 자회사인 타크리어사가 발주한 약 6억2000만달러(한화 약 7400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송유관 설치공사의 낙찰통보서(LOA)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UAE 아부다비 정유공장과 타크리어사의 루와이스 공단을 연결하는 약 230km의 핵심 구간을 포함, 알아인 저장소, 아부

다비 국제공항 등을 연결하는 총 910km의 송유관을 설치하는 공사다. 설계·구매·시공 일괄 도급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중에 착공해 총 4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는 프랑스의 테크니파 컨소시엄, UAE 현지의 알자베사 등 총 7개사 참여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홍제역 인근 26층 복합타운 홍제역 인근 홍은1구역 정비사업구역에 세워질 복합타운. 지하4~지상26층(79.6m) 규모의 건물로 85㎡이하는 123가구, 85㎡이상 42가구 총 165가구로 이뤄진 아파트와 95실의 오피스텔이 지어질 예정이다.

8월 아파트 분양실적 33% 감소 수도권 증가 불구 지방 물량 줄어

지난달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실적이 예년 평균보다 33%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이 수도권 5864가구 등 1만4777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5718가구)보다 배로 늘었지만, 최근 5년(2005~2009년)의 8월 평균(1만1171가구)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9%, 전국적으로는 33% 감소한 것이다. 민간이 40%(4554가구), 공공이 60%(6923가구)를 분양했다. 1~8월 누계 실적은 수도권 9만4869가구 등 전국 14만1204가구로 최근 5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32% 증가했으나 전국적으로는 10% 감소해 지방에서의 분양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9월에는 수도권 4656가구, 지방 3178가구 등 783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 9월 평균(2만7004가구)의 30%에 불과한 물량이다. 서울에서 2673가구, 경기에서 1983가구가 분양되고 인천은 분양 계획이 없으며 지방은 경북 1280가구, 충북 903가구, 전북 533가구, 전남 462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나오는 아파트가 없다. 올 3분기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서울 1만3223가구, 인천 2619가구, 경기 3만894가구 등 4만6736가구로 최근 5년 동기 평균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강명훈 기자 augustin@

서울시 부동산 정보사이트 이용해보니…

매매 다음날 실거래가 확인 가능

집을 찾으려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고, 실거래가를 확인하려 한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모은 포털 사이트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을 지난 1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실제로 이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는 인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랭크되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메인 페이지에는 서울시를 구별로 검색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제공돼 해당 구역을 클릭하면 동별 맞춤형 정보검색이 가능

하다. 부동산종합정보란에는 ▲종합정보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개발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메뉴얼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놴다. 이곳 역시 지역 주소만 알면 토지이용일자부터 공시지가 등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 역시 빼놓지 않았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도 주소만 검색하면 해당매물의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어 부동산에 전화해 물어보는 수고를 덜었다. 이 사이트는 한 달 정도 걸리



뉴타운 사업등 진행현황·관련법규도 소개 50대 이상 이용하기엔 어려워 아쉬움도

는 국토해양부와는 다르게 거래 하루 만에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포인트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 거래 가격을 검색해 보니 전용면적 103㎡ 가격이 10억6000만원으로 지난 12일 거래가 성사됐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110㎡ 역시 시세(8월20일)와 비슷한 가격인 12억으로 계약이 완료됐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분기별·월별로 나와 있어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래가 없는 날의 시세는 확인되지 않는 게 아쉽다. 강남구 대치동 아이파크의 경우 지난 7월16일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격은

11억9500만원으로 계약이 성사됐고, 그 이후에는 계약이 없어 거래가격은 기록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한창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사업소개 수립절차 관련법규 현황 등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들이 찾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정보사이트는 특성상 젊은 연령대보다는 30대 이상 연령층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0대부터 60~70대 노인들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김부미 기자 boom@

강남 세곡·송파 마천에 임대주택 공급

SH공사, 전용면적 39·49㎡ 총 1321가구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송파구 마천지구 등 서울 요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송파구 마천지구와 강남구 세곡지구 등에 임대기간 30년의 국민임대주택 1321가구를 공급한다. 강남구 세곡지구는 전용면적 39㎡ 867가구, 49㎡ 400가구 등 4867가구가 우선·일반공급된다. 송파구 마천지구에서는 전용면적 39㎡ 119가구, 49㎡ 376가구 등 총 495가구가 공급된다. 세곡지구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까지 마을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세곡동 사거리를 이용해 강남권 송파권 성남권 용인

권으로 진출하기 편리하다. 마천지구는 인근 천마산근린공원, 청량산, 남한산성 등산로가 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강동구 강일2지구에서도 전용면적 49㎡ 254가구, 이 밖에 상암 10·11단지, 은평 1·2지구, 장원 1단지는 재공급분으로 전용면적 39㎡ 5가구, 49㎡ 81가구에 대해 청약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총 1321가구 중 887가구는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434가구는 일반공급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세곡지구 39㎡가 2782만원에 월 25만9300

원, 마천지구 49㎡가 4014만원에 월 28만3900원 등이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여야 한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70% 이하고, 부동산 재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2424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 접수기간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며 당첨자는 10월 22일 발표한다. 입주는 세곡지구가 올해 12월, 마천·강일2지구가 내년 1월이고, 그 외 지구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김부미 기자 boom@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발급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총14과목 이수 시 발급 -

- 고등학교 졸업자 : 총 80학점(이수, 사회복지학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총42학점(14과목) 이수, 사회복지학 복수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구비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대학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문의 주시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 정보, 상담해드립니다.
(02) 2679-7773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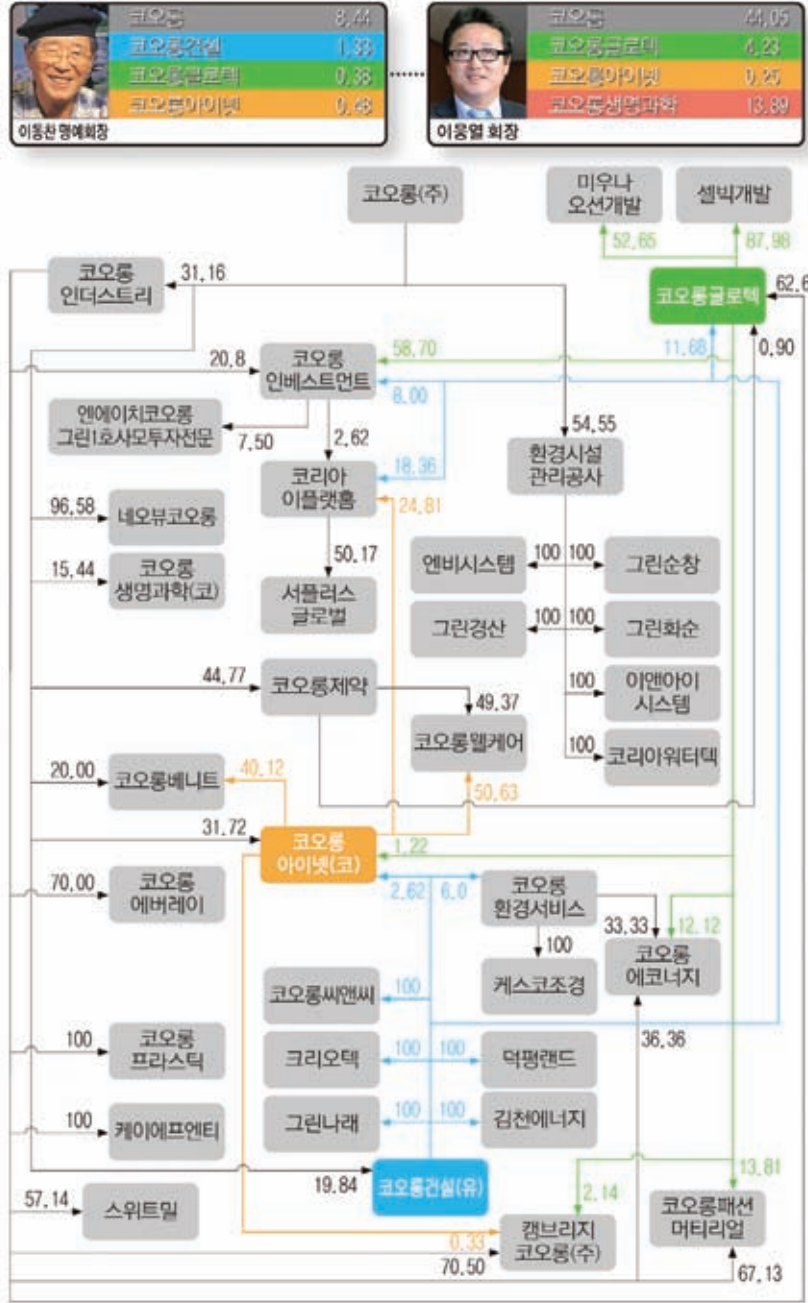
총수일가 지주회사 지분 과반보유 경영권 확고

자산 6조8290억원, 37개 계열사, 매출 6조 6750억원, 순이익 1540억원으로 재계 34위(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공기업 및 민영화된 공기업 제외).
지난 2월 19번째 지주회사로 변모한 코오롱 그룹의 현재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숫자다. 그동안 코오롱그룹은 계열사간 구조조정과 흡수합병을 통해 안정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지주사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지난 2007년 6월 코오롱유화(주) 합병으로 시작된 사업 구조조정은 2008년 3월 원사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따른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출범, 2008년 6월 P필름부문 SKC와 합작사 설립, 2008년 9월 고희수성수지 사업부문 매각, 2009년 8월 F&C코오롱 합병, 캄프리지와 코오롱패션간 합병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코오롱과 F&C코오롱의 합병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용이하게 했다. (주)코오롱은 당시 F&C코오롱 흡수 합병으로 1400억원 가량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산업자재·필름·화학 등 수출에 집중돼 있는 사업포트폴리오가 내수 위주의 패션부문을 추가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사업을 모태로 해 건설, 패션 사업 등에 진출했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해 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소 성장세가 정체돼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력사업이었던 폴리에스터 사업 및 신규 진출한 스파덱스 사업의 업황 악화,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 횡령 사건 발생 등의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사세가 다소 위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룹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코오롱그룹은 일차적으로 모기업인 (주)코오롱의 체질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자 사업 축소 및 철수, 자산의 외부 매각, 계열사간 지분 이전을 통해 사업정리 등이 이뤄졌다.

다.
특히 그룹의 주력 사업인 화학 소재 및 건설 부문과의 연계가 가능한 수처리 사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시설관리공사를 통한 물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기반으로 신규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신규 사업 부문이 아직까지 그룹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며, 향후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내재되어 있어 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와 함께 코오롱인더스트리의 100% 자회사인 코오롱플라스틱 상장을 검토 중이다.



코오롱그룹은 올해 2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경영권이 확고히 안정되는 한편 미래 전망도 밝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사진은 과천 코오롱그룹 사옥.

적자사업 축소·철수... 화학·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지난 2월 지주사 전환...이종열 회장 44%보유 9회사 경영권 행사
코오롱인더스트리 분사 후 하반기 실적 '맑음'...주력사로 부상

올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1일부로 기존의 (주)코오롱이 순수지주회사인 현재의 (주)코오롱과 사업부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로 인전분할돼 재상장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이후 코오롱그룹은 지난 6월28일자 (주)코오롱 신주(주당 2만5700원)를 대가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보통주(주당 5만1200원) 공개 매수를 완료했다.
특히 이종열 코오롱그룹 회장 등 대주주가 공개 매수에 참여해 코오롱 지분을 기존 15.31%에서 52.48%로 확대했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지분율도 19.9%에서 35.0%로 확대되는 효과를 얻었다.

구조조정 통해 모기업 체질 강화
코오롱그룹은 (주)코오롱의 화학·소재

이 과정에서 그룹은 과거 전통적인 화학·소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화학·소재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2008년에 모태 사업인 원사 사업부를 분할한 한편, 유화과 산업자재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라미드 섬유·고부가가치 전자재료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주력 브랜드가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캠브리지 인수를 통해 납성복 시장을 강화한 패션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도 그룹 전체적인 사업에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코오롱 그룹은 신규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물, 에너지 및 바이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



경영 안정화 사전 정지작업 끝내
코오롱그룹은 지난 2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주사인 (주)코오롱이 핵심사업 영역인 화학소재/패션(코오롱인더스트리), 건설/환경(코오롱건설, 환경시설관리공사), 제약/바이오(코오롱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티슈진), 무역/IT(코오롱이넷, 코오롱베니트, 네오뷰코오롱) 등 총 9개 주요 자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건설, 코오롱이넷 등 주요 자회사들은 코오롱프라스틱, 코오롱씨앤씨, 코오롱에코너 등 주요 사업부문 계열사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거나 최대주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종열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그동안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최근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면서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인 지주회사 (주)코오롱의 지분 과점을 점유하면서 그룹 전반을 장악했다.
(주)코오롱은 이종열 회장이 지분 44.0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찬 명예회장이 8.4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주)코오롱의 지분 11.20%는 자사주다. 이종열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확고한 경영권을 다진 것이다.
특히 (주)코오롱은 주요 자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분 31.16%, 네오뷰코오롱 지분 96.58%,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15.44%, 코오롱제약 지분 44.77%, 코오롱베니트 지분 20%, 코오롱이넷 지분 31.72%, 코오롱건설 지분 19.84%, 환경시설관리공사 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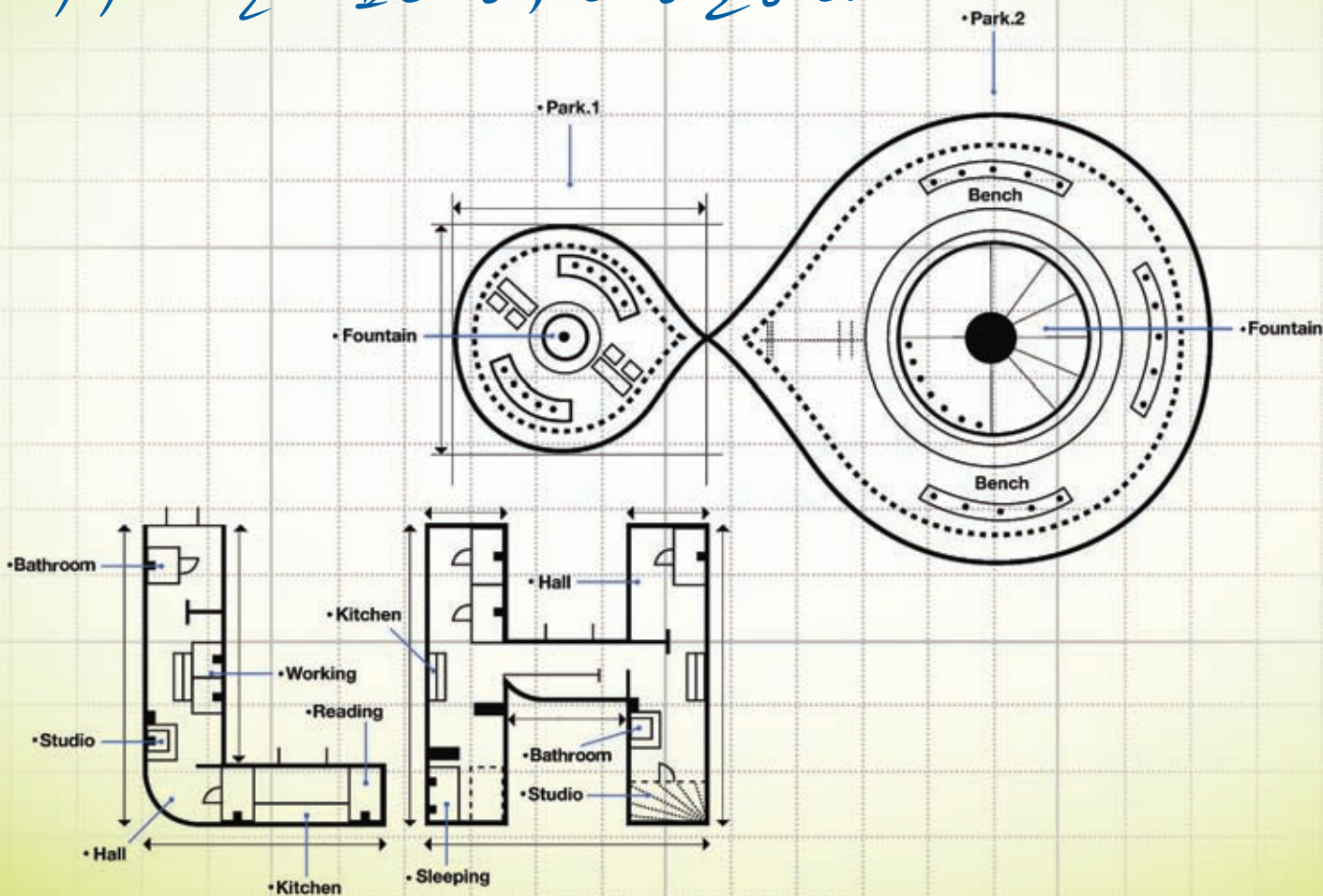
54.55%, 티슈진 지분 35.04%를 각각 보유해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2011년까지 시장 점유율 13%로
코오롱그룹의 주력사로 거듭나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분사 이후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다. 이는 올해 상반기 폐조의 실적을 거둔데 이어 하반기 실적도 '맑음'으로 전망 되기 때문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월1일 4만9700원으로 증시에 상장해 4월 중순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9월1일 현재 7만5000원 선을 돌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주가 상승세는 탄탄한 실적에서 비롯됐다. 이 회사는 2분기 영업이익 637억원을 벌어들여 시장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거뒀다. 산업자재, 화학, 필름 등 대부분

사업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이런 실적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 전망이다.
박대용 현대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 하반기 실적은 아라미드 섬유와 에어백, 패션사업 등 삼총사가 이끌어 갈 것"이라며 "올해 생산능력을 150% 늘린 아라미드는 공장 가동률이 내년 90%까지 높아질 전망이고, 에어백과 등산복 사업도 2011년 20% 이상 외형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도 "높은 마진을 창출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1년 말까지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13% 수준까지 상승시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주 기자 ahnki@

제8회 대학생 광고공모전 금상 수상작
이형수, 최승일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생활공간!



LH, 행복을 디자인 합니다!

주거공간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전에
더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생각합니다.

LH는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의 주거공간에서부터
모두가 쾌적하게 생활하는 녹색도시까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간을 디자인합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SK에너지 본사

녹색산업으로 종합에너지 기업 발돋움

그린기업 승부수 던진 SK 에너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도 올 상반기 12조원에 달하는 석유관련 제품을 해외에 수출해 삼성전자 다음으로 해외 수출이 높았던 기업. SK에너지. 이전 'SK에너지=정유사'란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 그린에너지 기업에 승부를 던지고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선 기존 사업을 녹색·저탄소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2차 전기 사업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 자원화하는 신기술로 국가, 사회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국내 첫 고속 전기차 배터리 공급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SK에너지의 첫 시도는 전기차로 연결되는 2차 전기 사업이다.

또한 기술개발에 투자한 성과도 가시화되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하며 결실을 맺고 있다.

SK에너지는 그린카 세계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개발에 투자해 왔으며 지난해 다임러 그룹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독일 다임러 그룹 글로벌 하이브리드 센터(Global Hybrid Center)가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미쯔비시 후소(Mitsubishi Fuso)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장착될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SK에너지는 다임러 측과 상호 보안 하에 향후 2년간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최근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첫 순수 고속 전기차로 개발 중인 i10 기반 양산 모델 및 기아차 기반의 차기 양산 모델의 배터



SK에너지는 전기버스 '일렉시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국내외 순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진은 생산된 전지를 연구원이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리 공급업체로 공식 선정됐다.

특히 이번엔 현대기아자동차에 공급하게 될 배터리는 기존 하이브리드 계열 자동차와 달리,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되는 100% 순수 전기차다.

동시에 60Km/h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고속 전기 자동차에 공급되는 고용량, 고성능 배터리로 높은 기술력이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SK에너지는 평가하고 있다.

SK에너지에 따르면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는 1회 충전에 16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시속 130Km/h로 주행 가능하다.

아울러 급속 충전 시 80%를 채우는데 20분이 걸리며, 일반 충전 시 완전히 충전되는데 6시간이 걸린다.

또한 SK에너지는 현대기아자동차

또한 7월 26일에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서산일반산업단지내 7만평(23만 1000㎡) 부지에 2012년 완공 목표로, 500M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위한 MOU를 충청남도 및 서산시와 체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500MWh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약 5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SK에너지는 2005년 독자 개발한 리튬전지용 분리막 기술과 고유의 전극기술 등 소재기술을 기반으로 부품소재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 성능의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SK에너지에서 개발한 리튬전지용 분리막은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산업의 해외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2차전기 산업의 경

신기술로 국가미래 발전 기여

SK에너지는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폴리머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SK에너지는 2008년 10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신기술에 대한 특허 이전 및 연구협력 계약을 아주대와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 기술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에 그치지 않고 촉매 기술을 이용해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 자원화하는 기술이다.

기존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의 사용 절감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등 획기적인 친환경 신소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일명 그린 폴(Green-Pol)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은 연소할 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그을음 등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고, 깨끗하게 연소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시의 피해 최소화과 환경 오염 방지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해성, 무독성, 청정 생산 공정 등 친환경적인 특성 이외에도 투명성, 차단성 등 기존 범용수지에 비해 뛰어나고 차별화된 장점으로 인해 건축용 자재, 포장용 필름, 식품 포장재 등의 활용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상업공정 및 제품 용도개발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완성했으며, 현재 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강재용 기자 manrikang@

2차전기·전기차 배터리·친환경플라스틱 CO2 자원화...저탄소 미래성장 산업 주도

차그룹 상용사업부에서 개발 중인 전기버스인 '일렉시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 국내외 순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50만대 규모 생산라인 구축

SK에너지는 향후 시장전망이 기대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5월말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SK에너지 기술원 내에 100MWh규모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1호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쟁력을 높였으며, 현재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2005년 독자 개발한 리튬전지용 분리막 기술 등 소재기술 기반에 양산 능력이 더해 진다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에너지는 기술에 기반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성장축 개발에 한창이다. 이를 통해 국가, 사회의 미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애널리스트가 본 SK에너지

‘석유 정제+신 사업’ 성장 가능성 무한

정유사에서 그린에너지 변모하는 SK에너지에 대해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바라볼까. 답부터 이야기 하면 '긍정적'이다.

NH투자증권 최치환 애널리스트는 세계 석유수요 회복과 신규 설비 증설량 감소 등으로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이고, 신사업 성장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애널리스트는 또한 "SK에너지가 리튬이온전지와 청정석탄 등 신에너지 사업 진출 등 새로운 분야의 영역확대로 계획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렵지만, 최근 현대기아차 전기 공급 계약 체결 등 신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 박재철 애널리스트는 2차전기 사업가치에 주목하며 부각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SK에너지 대표 브랜드인 SK에너지 주유소

박 애널리스트는 "현재 100MWh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대덕소제 1호 라인을 바탕으로, Mitsubishi Fuso, CT&T, 현대기아차로의 2차전기 공급을 앞두고 있다"며 "SK에너지의 생산 능력은 60% 수준이나 향후 추가 증설을 기대할 수 있어 분리막 등 핵심 소재 내재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전기 분리막 생산능력은 올해 말 세계 2 위권 수준인 기존 연간 1억 3000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2011년에 연간 2000억원의 매출액, 600억원 이상의 EBITDA, 6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최치환 연구원 <NH투자증권>
박재철 연구원 <미래에셋증권>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확인하세요.

Twitter & FaceBook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만드는 신인맥지도

새로운 만남의 광장에서 인맥의 '판'이 바뀐다!

소셜 웹 시대. 이 거대한 광장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생두마차처럼 내달리고 있다. 포털의 자상한 서비스에 걸맞은 국내 사용자에게 첫인상은 아쉽지만, 이 책은 그 아성을 뚫고 가장 앞서 달려나간 저자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다.

—한국일보 미디어 전략부장, 인터넷한국일보 온라인에디터 **홍전석**

단순한 SNS 매뉴얼이 아닌 트위터, 페이스북을 200% 활용한 인맥 만들기 프로젝트. 이 책의 출간은 트위터에 매료되어 거의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나에게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내게는 열광 한번 본 적 없지만, 수십 번 만난 사람보다 더욱 가까운 트위터 친구들이 많다. 단순한 소통을 넘어 기차 일을 하는 데 더 없이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원군들이다. SNS 입문자는 물론 중독 수준을 보이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될 것이다.

—스포츠포스트 기자 **양형모**

양광모 · 원섭 지음 | 272쪽 | 12,000원

Tel 02-322-6144/ Fax 02-325-6143/ www.muhan-book.co.kr
참신한 작가의 글을 기다립니다 muhanbook7@naver.com

가을의 문턱 아트페스티벌 풍성

9일 개막 'KIAF 2010' 등 문화예술행사 잇따라 열려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이달에는 다양한 전시회 및 예술축제가 개최돼 폭염과 장마에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래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풍부한 감수성으로 채워줄 문화예술행사로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서울 DMC 컬처 오픈, 서울 디자인 한마당, 종로 엘레지 특별전 등이 잇따라 열린다.

이 행사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오는 11월까지 두 달간 열릴 예정이다.

그 중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KIAF2010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1층 A.B홀에서 펼쳐진다.

특히 KIAF2010에서는 주빈국(참여 국가 중 중심이 되는 국가) 영국(UK)의 갤러리과 학술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눈길을 끈다.

또한 참가 갤러리 파티 및 콜렉터 파티, 작가발굴 프로그램 및 한국의 미디어 아트 소개 등 다채로운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2000년에 시작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서울의



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KIAF행사장 모습.)

9월 주요 문화행사 일정

행사명	행사기간	개최 장소
한국국제아트페어	2010년9월9일~13일	코엑스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2010년9월7일~11월7일	서울시립미술관 본관동 3 곳
서울 DMC 컬처 오픈	2010년9월9일~11일	DMC첨단산업센터
서울 디자인 한마당	2010년9월17일~10월7일	잠실종합운동장동 4곳
종로 엘레지 특별전	2010년9월1일~10월3일	역사박물관
서울 와우 북페스티벌	2010년9월7일~12일	서교예술실험협회

유일한 국제 비엔날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기존의 행사명인 '미디어 시티 서울 media city seoul'을 '미디어 시티 서울 Media City Seoul'로 변경하고 새로운 로고를 제시했다.

또 이번에는 좀 더 인문학적이

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미디어'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확장하고자 전시주제를 '트러스트 Trust'로 정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미디어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그리고 사회와 사회

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반영한다.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21개국의 45팀의 작품들이 전시되며 7일부터 올 11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2010 서울 DMC 컬처 오픈 행사는 KIAF와 같은 날에 개막해 오는 11일 막을 내린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소재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앞서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이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과 서울 DMC 컬처 오픈 조직위원회의 주관 하에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DMS 첨단거리 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컬처노믹스'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문화축제로 다가 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울 디자인 한마당과 사진전인 종로 엘레지 특별전, 책을 테마로 한 서울 와우 북페스티벌 등 풍성한 문화행사가 준비돼 시민들의 마음을 벌써부터 설레게 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ipppa@

한국영화 흥행코드는 '잔혹'?

영화가 잔혹해야만 흥행하는 것인가?

올 가을 극장가는 원빈 주연의 <아저씨>를 필두로 이병헌, 최민식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 <김복남 살인 사건 전말> 등 잔혹극들이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다.

특히 <아저씨>는 지난 8월4일 개봉 11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극 중 원빈은 불행한 사건으로 아내를 잃고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태식 역을 소화했다.

태식은 감정을 교류하게 된 '어린 친구' 소미가 납치당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태식의 복수극은 잔혹한 영상을 수반한다. 도끼로 정수리를 찍고 입속으로 칼날이 들어가며 신체의 각 부분을 적절히 갖고 찌르는 장면이 난무한다.

<악마를 보았다>는 잔혹성 때문에 제한상영가가 두 번이나 제동이 걸렸다. 잔인한 영상을 잘라내도 상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던 것. 특히 가족이 보는 앞에서 머리가 잘리는 처형을 당한다는 설정은 잔혹함의 극치를 표현했다.

서영희 주연의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외판 섬 무도, 여섯 가구 아홉 명이 무참하게 살해된 끔찍한 사건을 다뤘다. 피범벅이 된 여인(서영희 분)이 초점없는 눈으로 한 곳을 응시하는 포스터는 영화의 잔혹

성을 예고한다. 이들 잔혹극의 공통점은 '복수극'을 다룬다는 데 있다. 개인의 복수를 위해 평범한 사람조차 극악한 살인을 저지르는 데 동참한다.

또 <악마를 보았다>,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등에서의 폭력은 권총으로 이루어지는 할리우드식 폭력과는 달리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접촉폭력'이란 점에서 관객들이 체감하는 잔혹성은 더하다. 이러한 잔혹극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식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잔혹함이 관객들을 더해주는 한국영화의 배경으로 상상력의 부재를 꼽기도 한다. 복수극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데 폭력의 잔혹성에만 의지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영화기획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친구>, <올드보이>서부터 <악마를 보았다>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영화의 잔혹성은 날이 더해진 것은 사실이다"면서 "적절한 장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는 허용하지만 폭력과 잔인성을 흥행의 주요 무기로 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khj@

드라마 속 사모님들 패션대결도 '후끈'

김정은·전인화·장미희 패션대결...시청자 눈길 사로잡아

배우들의 연기대결 만큼 뜨거운 것이 있다. 바로 패션대결이다.

최근에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전인화와 <나는 전설이다> 김정은, <인생은 아름다워>의 장미희가 각자의 특성을 살린 패션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최근 SBS 월화드라마 <나는 전설이다>에서 눈물의 열연을 펼치고 있는 김정은이 패션으로 또 한번 주목 받았다. 김정은은 일명 '청담동 며느리룩'을 선보여 고급스럽지만 따라하기 쉬운 패션을 선보였다. 패션 디자이너 김정주씨는 "그동안의 사모님 스타일은 따라할 수 없는 어려운 패션이었다면 이번 김정은의 스타일은 심플한 보석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전인화는 KBS 수목극 <제빵왕 김탁구>에서 차가운 미소와 폭풍수련 연기를 보여주는 거성가의 안주인 역할을 맡아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 패션을 완성했다. 전인화의 패션은 극의 흐름에 따라 60년대에서 현대로 옮겨오며 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변한다. 전인화 스타일의 핵심은 화려한 디



김정은



전인화



장미희

자인의 보석과 강렬한 컬러의 헤어다.

특히 전인화의 당당함과 세련된 느낌을 잘 살린 헤어는 실제 30~40대 여성들이 올 가을 따라하고 싶은 헤어스타일로 꼽히기도 했다.

20대 못지 않은 감각으로 각광받고 있는 장미희는 우아한 스타일로 눈길을 끌고 있다. SBS 주말극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천천난 만하고 개성넘치는 성격의 CEO 조아라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장미희는 독특한 헤어스타일도 앞세운다. 앞머리를 짧게 옆으로

내려 산뜻하고 귀여운 느낌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것. 이에 압구정동 SM용실 원장은 "배우들이 방송에 비취지는 모습이 주부들의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짧은 컷트 머리를 하러 오는 손님이 파마 손님에 비해 20~30%가량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과감한 스타일과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중무장한 배우들은 연기만을 승부처로 삼지 않는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배우들이 살아남는 법이다.

한옥주기자 gracebyok@

유쾌·상쾌·통쾌 '해결사'가 온다

올 추석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권혁재 감독의 영화 <해결사>가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영화는 주연배우 설경구와 이정진을 앞세워 관객몰이가 가장 치열한 추석시즌에 도전장을 내밀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류승완 감독은 "이번 영화는 내가 선택하고 대 한민국 최고의 배우 설경구가 인정



한 권혁재 감독의 영화다. 실망하지 않을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추천사를 전했다.

올 추석 액션 기대작 <해결사>는 상대가 강할수록 합정이 깊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해결사의 통쾌한 반격과 스피드한 액션 패감의 절정을 선사할 예정이다며 오는 9일 관객을 찾아가는다. 한옥주기자 gracebyok@

의리로 다시 뭉친 '동방신기' 세 멤버

믹키유천 주연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OST 참여

KBS 2TV 월화극 <성균관 스캔들>의 OST(Original Sound Track) '찾았다'가 화제다.

'찾았다'는 동방신기의 멤버인 영웅재중과 시아준수가 드라마 신곡식을 치르게 된 믹키유천(본명 박유천)을 위해 함께 참여한 것이다. 세 멤버가 함께한 '찾았다'는 평생 사랑하고픈 운명의 한 사람

을 찾게 됐다는 내용의 노랫말을 담고 있다. 이 곡은 극 중 성균관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믹키유천, 김윤희(박민영 분), 구용하(송중기 분), 문재신(유아인 분)의 설렘 가득한 청춘로맨스를 잘 표현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기자 khj@



박태진 기자 tjipppa@





화이팅! 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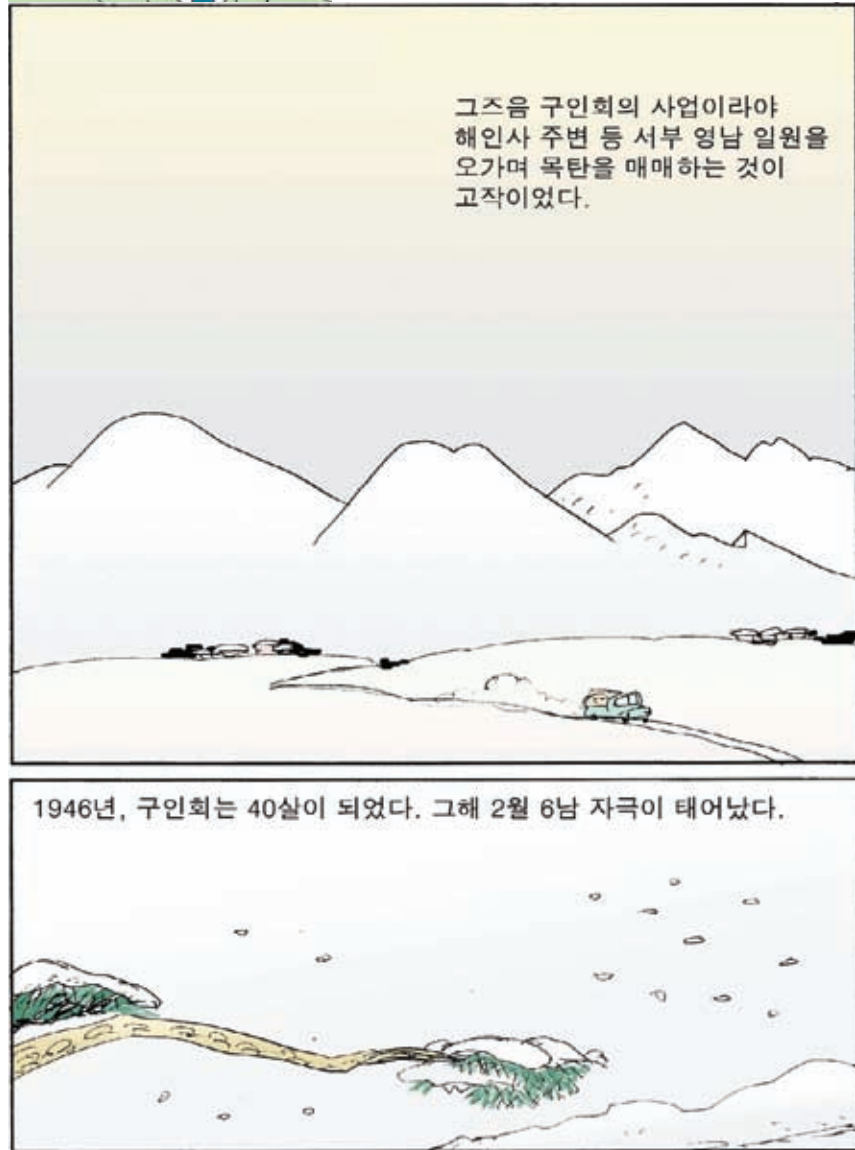


| LG그룹편 |

한국 전자산업의 효시

연암 구인회 <제 10화 신화의 시작> 글·만화 유영수

"남이 미쳐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일단 착수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라. 성공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에 도전하라."



“변하라 실행하라...꿈은 이뤄진다”

박종우 삼성전기 사장 연세대 CEO특강

삼성전기 박종우 사장이 “학생들은 명확한 목표와 꿈을 설계하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며 실행을 통해 그 꿈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사장은 지난 1일 연세대학교에서 ‘상상을 현실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CEO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생들과 교감을 나눴다.

이번 특강은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가 2010학년도 2학기 과정에 삼성전기 CEO 강좌 ‘IT 기술의 혁신 및 경영’을 개설한데 따른 것이다.

개강일 첫 강사로 나선 박 사장은 하버드대 졸업생 조사결과를 인용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세운 3%만이 각계 최고의 인사가 될 수 있다”며 단기적이고 희미한 목표를 세운 학생은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박 사장은 기적을 만드는 글자 ‘꿈’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꿈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낳고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큰 꿈을 가

지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면 언제나 놀라운 결과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 사장은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을 당부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라는 의미로 “내 인생에 꾸준히 초구! 를 날려라”고 말했다.

더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에디슨(147번 실패), 라이트 형제(805번 실패), 애플리히(606번 실패)의 147*805*606 법칙과, 1996년 세계최초 1G D램 개발, 2006년 프린터사업 세계 1등 경쟁력, 2007년 세계 TV시장 1위 신화를 이끌었던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며, 시작을 했다면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 실천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기술의 진보에 삼성전기가 함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의 소형 다기능화, TV의 슬림 복합화 등 전자기기들이 진화하는 과정에 삼성전기의

각종 부품과 복합 모듈들이 기여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비즈니스위크 선정 ‘미래 IT산업을 주도할 성장성 있는 IT기업’ 16위에 등재된 삼성전기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며 2015년 Top-Tier 전자부품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했다.

박 사장은 또 삼성전기가 지금까지의 IT기술을 넘어 스마트폰, 디지털, 전기자동차, 바이오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수강생은 와인잔에 가득 담긴 0402 MLCC(가로 0.4mm, 세로 0.2mm, 두께 0.2mm의 적층 세라믹콘덴서)의 가격이 5억 원이 넘는다는 박 사장의 돌발 질문에 참단 부품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 1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삼성전기 CEO 강좌’는 무선 고주파, 전자재료 등 삼성전기의 핵심 기술 강의와 함께 CTO 인사팀장 특강도 병행될 예정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박종우 삼성전기 사장이 1일 오후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과 주최로 열린 'CEO 강좌 : IT기술의 혁신 및 경영'을 강연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대졸 신입 사무직원들 ‘용접’ 배우며 땀 뻘뻘

현대중 '장인훈' 교육

현대중공업 대졸 신입사원들이 정주영 창업자의 현장경영 철학을 이어받아 생산현장을 배울 수 있는 이색 입직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입사한 대졸 공채 신입사원 77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용접과 철판 절단 등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장인훈(匠人魂)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장인훈 교육은 산업명장, 기능장 등 현대중공업의 전문 기능인으로부터 용접과 철판 절단 등을 배우고 직접 실습하며,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종합중공업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밑거름이 됐던 장인 정신을 체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입사원들은 사무직으로 입

사해 현장 기술이 전무하지만 선박 건조와 해양설비 제작 등 생산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접기와 절단기로 직접 철관을 자르고 붙이면서 현장의 생생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신입사원 박윤정 씨는 “생전 처음 용접을 해보니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작업들이 거대한 선박을 완성시킨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했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인훈 교육은 현대중공업 신입사원들이 생산현장의 업무를 이해하고 회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지난 1991년부터 20년째 진행되고 있다.

교육 중인 신입사원들은 기본



소양교육 외에도 전산 영입군 월출산 극기훈련 등 강인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팀원 강화훈련과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등을 거쳤으며, 이번 장인훈 교육에 이어 다음달 초까지 직무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거쳐 각 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안경주 기자 ahnkj@



다문화·장애인·저소득 가정 GM대우서 합동결혼식

GM대우 임직원들이 설립한 ‘사회복지 법인 지염대우한미음재단(이하 한미음재단)’이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과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총 12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2일 GM대우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GM대우 마이크 아카몬(Mike Arcamone) 사장, 최경환 인천시 보건사회국장, 홍영표 국회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지 등 3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의 합동결혼식을 열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홍보외길 25년’ 노순석 전무 박사학위 받아



‘홍보 외길 25년’을 걸어온 노순석 한국투자증권 전무가 ‘미디어 평판과 기업 평판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노 전무의 박사학위 논문은 각 증권사가 미디어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그로 인한 이미지가 실제 기업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평판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해왔다”며 “이러한

믿음이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고, 공부에 대한 갈증이 컸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 박사 홍보맨이 탄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더욱 예사롭지 않은 것은 홍보맨으로서 그가 걸어온 길 자체다.

노 전무는 지난 1985년 데이콤(현 LG데이콤) 홍보실을 시작으로 25년째 홍보 외길을 걸으며 현역으로는 매년 최고참 홍보맨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는 팬택 계열 기흥홍보실 상무를 지냈으며, 한국투자증권에는 2005년 11월부터 몸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PR협회 부회장을 맡는 등 대외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허창수 회장 5년연속 사재 출연

주식 40억원어치 기부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5년 연속으로 사재(私財) 출연 약속을 실천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30일 재단법인 남촌재단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GS건설 주식 4만 9020주(약 40억원어치)를 출연했다. 허 회장의 사재 출연은 지난 2007년 1월 남촌재단 창립 이사회에서 “매년 GS건설 주식 출연 등을 통해 재단 규모를 500억원 이상으로 키우겠



다”고 했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지난 2006년 12월 GS건설 주식 3만5800주로

시작해 2007년 1월 8만6310주, 2008년 1월 2만18660주, 지난해 4월 3만2470주 등 지금까지 GS건설 주식 총 23만2260주, 212억원 어치를 남촌재단에 기부

했다.

남촌재단은 허창수 회장이 선친인 고(故) 허준주 GS건설 명예회장의 사회환원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2006년 12월 설립했으며 재단 명칭 또한 허 명예회장의 아호인 ‘남촌’에서 따왔다.

남촌재단 관계자는 “주식 출연금은 재단 사업 수행의 원동력으로 삼아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박용만 (주)두산회장 “인재 직접 뽑겠다”

대학 채용설명회 참석

박용만 (주)두산 회장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직접 나선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2일 서울대학교 신소재공학관에서 진행되는 두산그룹 채용설명회에 참석한다. 또 3일 KAIST, 6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채용설명회에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박 회장 뿐만 아니라 박지원 두산중공업 사장 등 계열사 CEO들도 모두 참

석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일 계획이다. 두산 CEO들이 대거 채용설명회에 나서는 것은 인재를 중시하는 풍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박용만 회장은 “10년 뒤에 누가 나에게 ‘두산은 무엇이 다르기에 계속 성공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두산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말로 두산식 인재경영에 자신감을 표현한 바 있다. 또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두

산그룹 이미지 광고를 여러편 제작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두산의 채용 시스템은 인성 위주라고 소문이 나 있을 만큼 인재 양성 중심의 채용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오는 13일까지 하반기 대졸 공채 서류접수에 나선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메거진 등 총 18개 계열사가 채용에 나서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 안경주 기자 ahnkj@

Hi-Future For You

Hi-Future For You는 고객 행복과 인류사회의 미래를 지향하는 하이마트의 경영 이념입니다.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휴대폰 다 있다! 하이마트

스마트폰이 대세라는데 뭘 사야하는지 헷갈리셨죠? 이제 여기저기 힘들게 찾아다니지 마세요. 갖고 싶은 최신 스마트폰을 한 눈에 비교하고 내게 맞는 요금제까지 기쁜 줄게 상담하는 하이마트 최신 휴대폰 살 때도 역시 하이마트입니다.

하이마트는 100% 직영점

전국매장 대표전화: 1588-0070 (주최: 02-770-0170)

www.e-himart.co.kr

전자제품 살 땐 -

Hi mart 하이마트



사랑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LG전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365일 보송보송~ 여자의 생활이 한층 더 올라갑니다!



40분만에 보송보송한 빠른 건조

옷감보호에 구김, 냄새, 먼지, 보물제거까지

LNG가스로 저렴한 유지비용
(6Kg 15일 사용기준 월 5,300원)

정말가득하다! 건조기를 구매할 Good Chance!
**LGTROMM 건조기
보송보송 365 EVENT**

- ☑ 기간 | 2010년 8월 1일 ~ 9월 30일
- ☑ 제품 | TROMM의류건조기 가스식 모델
- ☑ 대상 | 행사기간내 제품구매고객(2010년 한정)
*단, 10월 15일까지 설치완료한 고객까지 한함
- ☑ 혜택 | 1. 가스배관 설치비 지원 (15만원 상당의 교환할 상품권 지급)
2. 10만원권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수기등록시
- ☑ 행사점 | 전 채널 오프마켓구매고객(제외국선, G마켓, 11번가 등)

LG TROMM 건조기

■ 전시매장

• 서울/경기 LG베스트샵 다오스논점 (02)642-8755 / 대치점 (02)649-8001 / 용인죽전점 (031)896-0044 / 강서본점 (02)3664-0065 / 이태원점 (031)708-7800 / 남서울가전 (02)2672-9881 / 인화프라자 (02)337-3050 / 수지프라자 (031)266-0047 / 신이전자 (02)417-8989 / 행신점 (031)971-2225 / 성수전자 (02)470-7777 / 강남전차프라자 (02)676-3900
에이비씨가전 (02)517-7447 / 압사가전프라자 (02)3427-7777 / 백화점 롯데분당 (031)738-2808 / 롯데본점 (02)756-0980 / 현대 무역 (02)3453-0706 / AK PLAZA 분당점 (031)779-3590 • 영 남 창원 상남점 (055)267-8855 / 대구 범어점 (053)601-7700 / 부산 해운대점 (051)742-2655 • 대 전 송촌점 (042)638-2500 / 문산점 (042)471-0440

■ 제품 홈페이지 : tromm.lge.co.kr ■ 문의처 : 지역번호없이 1544-7777, 1588-7777 ■ 서비스홈페이지 : www.lgservice.co.kr (인터넷으로 서비스 신청 시 소정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상담 및 제언 : 080-023-7777

LG전자서비스 엔지니어 교육생 모집(~9.29) 자세한 사항은 www.lgservice.co.kr 참조